

# Contents



## issue

기획특집	직장내성희롱법제화 10년 - 직장내 성희롱, '성적 굴욕감' 뿐 아니라 '직장 내 성별 위계'에 도전하자 - <3M 포스트잇> 르뽀 극화 - 성희롱 김팀장 - 내 옆자리 저 미니스커트는 정말 불쾌한 성희롱?	2 5 11
------	---	--------------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 반성폭력운동과 만나는 풍경	13
--------	--	----

##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18
생존자 말하기	水的 이야기 - 연재 11th 수능전야 1 말하기로 가해자를 고발하다 - 연재 3rd	20 25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그녀들과 함께 달린 10km 완주의 기록	29 30

## edutainment

몸이야기	연재2/3 - 욕망의 모방, 질투는 나의 힘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영애 前소장, 이미경 現소장 "상담소에서 활동한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36
소모임 생각	도미야마 이치로의 『전장의 기억』	41

##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42
사업 review	여악여락 반차별상상더하기 Open Talk! 작은말하기 인권감수성교실 시범수업	44 45 46 47 48
사업 preview	총회	50
회원소식	소모임 활동 / 훈훈한 기부 / 아낌없이 주는 나무	51

# 직장내 성희롱, ‘성적 굴욕감’ 뿐 아니라 ‘직장 내 성별 위계’ 에 도전하자

◎ 성문화운동팀 키라



1999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문화된 이래로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성희롱 관련한 다수의 관련 법령이 제·개정을 거듭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상담소에 들어오는 직장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꾸준히 전체 상담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기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 대응 운동의 성과라 할 만하다.

하지만 성희롱을 주제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인터넷의 댓글,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든다. 성희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일상의 대화는 거의 ‘이것도 성희롱이야?’ ‘이게 어떻게 성희롱이야?’ ‘처다만 봐도 성희롱이라구?’ 라는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논쟁과 질문이다. 그 질문의 폭포에서 어쩔 수 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성희롱 개념이 대중화된 것은 맞지만, 성희롱의 어떤 개념이 대중화된 것인가?”

통상적인 이해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것이 성희롱이다”라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다른 이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행동도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과 같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도 널리 알려진 성희롱의 정의이다. 이러한 설명은 여성단체에서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의 과정에서 제공한 콘텐츠이다.

하지만 ‘성적 굴욕감’이 직장내 성희롱 개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되는 상황은 애초에 여성 운동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직장 내에서 일상화된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은 ‘다양한 불쾌감’을 그나마 ‘자기 경험과 가까워 보이는’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적 굴욕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직장내 성희롱 개념에서 성적 굴욕감이 유일하

게 중요한 요건으로 이해될 때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성/차별의 맥락을 토론하고 직장 내의 변화가능성을 탐색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에 대한 기계적 해석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해결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팽배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 직후 늘 여자 비서에게 자기 어깨와 목을 주무르라고 하는 남자 상사가 있다. 그 상사의 반복되는 요구가 이 여성에게는 스트레스였고,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성희롱으로 진정할거예요.' 그 때부터 그 회식 자리는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이다. '폐니스를 주무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성희롱이나?' '어른에게 공손한 것이 사회 미덕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오가며,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것도 아닌데, 아무 것이나 다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여직원 버릇을 고쳐놓기 위한' 훈계와 모욕적인 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화한 것은 위와 같이 모든 인간의 '성적인 굴욕감'을 촘촘하게 나열하고, 그것을 유발하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 행위 유형으로 일대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직장내 성희롱 대응 운동이 시작되고 여성 운동에서 이것을 이슈로 삼았던 것은 직장 생활의 사적 영역 정도로만 여겨지고, 비가시화되었던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과 관련한 여성들의 경험을 문제화하고 공격화하기 위해서였다. 즉, 젠더 위계가 당연한 조직 구조와 문화를 문제제기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성희롱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 그 중에서도 '성별/성'에 대한 언급 혹은 관련 행위가 그 젠더 위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지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애초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간다면 직장 내에서는 '어깨와 목이 성적 신체 부위인가 아닌가?' 라는 허탈한 신체 부위의 성적 등급화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보다, '어깨를 주무르도록 요구하는 그 행위를 문제제기한 당사자가 문제화하고 싶은 성차별의 경험/행위'를 종합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행위로 인해 조성된 고용 불안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정 행위를 본인에게 직접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직장 내 조직 구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는(받아들이는) 방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직장 내 젠더 위계관계'에 함께 도전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한 논의들이 모두 '어깨와 목이 성적인 신체 부위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특히 '왜 성적 굴욕감을 느꼈나?'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입증에의 요구는 문제제기자에게 돌아간다. '다른 사람은 성희롱이라고 말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성희롱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런 경험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냐? 납득시켜라'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개인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직장내 성희롱'을 주제로 하여 이런 질문과 논쟁이 오고 가는 다양한 공간(직장내 회식자리, 성희롱 예방 교육 자리 등등)에서 목격되는 토론의 내용은 늘 인간의 '성적 굴욕감'에 대한 본질적 탐구로 이어지고 끝나는 듯 해 아주 안타까울 지경이다.


두 번째로 우려스러운 점은, '성적 굴욕감'이라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이 쉽게 '성도덕주의'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제기하는 성희롱/차별의 문제가 '풍기 문란'과 '성도덕'의 문제로 이해되면서, 성적 평등의 문제는 쉽게 성적 규범의 문제로 이동한다. 예를 들어 '여성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하면서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교사의 성희롱 진정과 관련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원고가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

황, 성적 동기, 의도의 유무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볼 때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 법원에서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의 선량한 성풍속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바로 그러한 행위가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세간의 주목을 받던 소위 '술 따르기'에 대해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해 어떤 상식이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위의 '술 따르기'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교감의 술 따르라는 요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술을 따라야 맛이 있다'는 사회적 통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이다. 그 통념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 통념이 우리 직장 내에서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게 생각하는/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감은 '예의를 차리기 위한 의도'로 술 따르기 권유를 하였지만 해당 여성은 상대방의 의도대로 상황을 이해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를 토론하고 소통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과정에서 성별 위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교사들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자가 술을 따라야 제 맛이'라는 '상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토론되어야 하고, 그 상식이 직장 내의 위계를 어떻게 강화하는지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성'에 대한 통념은 매우 견고하다. 여성 운동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이슈 가시화는 곧 '풍기 문란'과 '성도덕'으로 곡해된다. 이러한 것의 부작용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성도덕/성규범의 영역'에 존재하는 여성들만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성규범에 맞는 피해자만이 문제제기하고,

또 그 규범에 맞는 피해 내용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성차별적, 여성혐오적 믿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문제제기의 내용이, 애초 여성 운동에서 제시하였던 '성적 평등'이 아니라 기존 사회에 팽배한 '성적 규범주의'로 채워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성적 규범주의'가 아니라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과 대중화의 내용을 새롭게 전망하지 않는다면, 직장내 성희롱 대응 운동은 계속적으로 '직장을 성 보수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으로 곡해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 대응 운동이 10년인 지금, 여성 운동에서 왜 직장내 성희롱을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였는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문제화하여 성적 평등을 구현하는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대해, 위에서 문제제기한 직장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의 역효과가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이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성희롱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제도를 개인이 활용할 때에, 그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론을 생산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바로 여성 운동의 몫일 것이다. 



# 3M 포스트잇

## 르뽀 극화 성희롱 김팀장

◎ 본 상담소 직장내성희롱 연구팀 토리



3M 포스트잇은 포스트잇 중에 최고로 여겨 집니다. 소위 정품(正品)이랄까요. 포스트잇의 속성을 생각할 때, 제일 좋다는 것은 그만큼 어디에도 완전하게 붙어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글에 등장하는 남직원 집단이 그렇고, 그 속에서 함께 일하는 은주와 경미도 그렇습니다. 김팀장의 성희롱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던 남직원들은 팀장이 바뀌자 누군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여주기라도 한 듯 사건과 여직원들을 외면합니다. 포스트잇은 은주가 관리하는 비품들 중 하나기에, 그녀에게 기대되는 직장내 돌봄노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양산하는 시답잡은 직장내 남성문화와 그 속에서 자신의 성희롱 경험을 조금은 다른 목소리로 말해내는 여직원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은주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_ 08년 12월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02706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1027063))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내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가시지 않는 짝짝함이 남아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다. 언젠가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될 것만 같은. 뒤통수의 서늘함 말이다.

\* \* \*

나는 직장인이다. 대학에선 컴퓨터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와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다. 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프리젠테이션, 브로슈어, 리플렛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내 직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즐비한 인쇄분야에서도 꽤 알려지고 규모도 있는 편이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전공 분야도 잘 살렸고 첫 직장도 잘 잡았으니 이만하면 요즘 시대의 관참은 20대로 꼽힐 만하지 않은가. 9시 출근과 5시 퇴근. 과한 프로젝트만 아니면 야근도 없고 저녁시간이면 헬스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드라마도 챙겨보니 얼마나 좋을 소냐. 난 내 직장이 좋다.

은주씨 마스크킹 테잎 좀 쥐요. 또 다 썼네.

아침이면 떨어진 문구류를 챙기려는 팀원들이 모여든다. 이럴 때면 관참은 디자인이 떠올랐다가도 까먹기 일쑤다. 왜 좋은 아이디어는 아침 이맘때쯤 떠오르고, 왜 나는 비품 담당자여야만 하는가.

여기요.

이대리에게 테잎을 건네고 비품 반출 목록에 체크를 한다. 서랍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아 일러스트 창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전처럼 화기에 애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 경미씨와 나는 조금 더 친밀해졌지만, 입사동기인 동수는 거의 남남이 되어버렸다. 점심시간, 사무실에 둘 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누구 한 명은 11시 50분쯤 어딘가로 사라져있다. 그것 만 빼면 사람들과 조금 불편해졌다는 것 만 빼면 난 여전히 내 직장이 좋다. 조금 더 이곳에 남아 경력을 쌓으면 더 관참은 회사로 이직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불편한 마음도 참고 견딜 수 있다.

\* \* \*

그러니까 두 달 전이었다. 그 때만해도,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 까지 만 해도 내 업무량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신입으로 들어 온지 얼마 안돼서부터 팀장은 내 디자인을 꽤 마음에 들어 했었다. 주 거래처가 아닌 소규모 기업의 리플렛은 모두 나에게 맡길 정도였으니까. 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어떤 일을 맡겨도 제 시간에 끝내고 성실했던, 웬만큼 능력도 있었던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많이 시키나 싶었고, 좋았다. 항상 피곤해도 그러려니 했다.

언니는 왜 다 예스야. 예스맨도 아니고 예스, 예스. 좀 못한다고 해봐.

동아리 후배가 나에게 했던 충고였다. 맞다. 일단 그랬던 게 아니다. 선배 누나 돌잔치 도우미에서부터 내 수업도 핑크 내고 해줬던 대타 과외까지.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고 미안하다는 말엔 하하하 웃어버리고 말았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괜히 인상 찌푸리며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참.

녹록치 않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 뿐일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신입사원 시절. 그래. 이렇게 힘든 시대에 돈이라도 벌고 일이라도 하는 게 어딘가 — 하는 마음으로 계속 견뎌왔던 것 같다. 그렇게 훌쩍 3년을 지냈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항상 함께 식사를 했다. 지금처럼 외근을 나간다는 속아주기도 힘든 핑계로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오는 경우도 드물었다. 식사장소는 빌딩에 있는 구내식당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뷔페식당이었다. 어디를 가든 가는 문제는 그 날 팀장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그래도 나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 그러려니 했다. 음식가림이 심하던 이대리나 진수씨도 별 소리 못하고 따라왔다. 반찬 다섯 개 중 2개 밖에 못 집어 먹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도 불쌍해보였다.

이대리 어제 잘 잤나? 요새 좀 힘들다며?

그러게요. 하하. 마누라가 자꾸 괴롭히네요.

팀장의 시답잖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유부남들의 대화가 없으면, 식사자리는 참 심심했을 것이다. 어젯밤 잠자리, 정관 수술 고민, 자녀 학원비 등등. 항상 7명 쯤 모였던 식사자리 멤버는 나와 경미씨를 제외하고 모두 남자로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경미씨도 나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조용하고 차분하고 식사예절 바른 참한 여자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던가?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모두 함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다. 늘 화기애애했기에 야근도 힘들지 않았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C전자의 새 브로슈어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를 후였다. C전자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중 가장 큰 기업이었다. 간간한 팀장은 극도로 예민해져있었고, 팀원들은 제출 전 3일 가까이 야근하며 새 브로슈어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하지만 C전자와 거래를 끊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할 만큼 결과는 엉망이었다. 회사의 사장이 바뀌었으니 취향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C전자 부장들을 쫓아 열심히 뒀던 팀장님은 대체 무슨 영업을 했던 걸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들어온 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지금까지 본 팀장의 표정 중 가장 지쳐보였다. 팀원들은 안절부절못하기 시작했다. 담뱃갑 쥐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명은 옆 팀 직원들을 불러 담배를 피러나갔다. 이대리는 다음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척 하며 진수에게 들은 C전자의 상황을 동수와 이야기 하고 있었다. 이럴 때 꼭 자기자리를 지키며 그대로 앉아 있는 사람은 경미씨와 나뿐이다. 담배라도 배워둘걸 그랬지.

은주씨?

네.

잠깐 이리 좀 와봐.

한참을 찌그림 상을 하고 앉아있던 팀장이 나를 불렀다. 벌써 일어나 팀장 자리로 갔다. 또 뭔가 시작하려나보다.

내가 말이야 은주씨.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옷이 그게 뭐야 응? 여기가 학교야? 좀 차려 입어. 응? 무릎에 딱 떨어지고 그거 왜 알지? 엉덩이 꼭 끼는 치마 알지 응? 스튜어디스 입는 거 그런 거. 알지 응? 그리고 다니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팀장이 다혈질 기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간간한 안벽주의자에게 실패의 경험은 차라리 수치이다. 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실패를 나에게, 그것도 내 옷에게 돌리는 것은 이상하다 싶었다. 아니, 이상하다는 말도 아까울 만큼 황당했다.

알겠어? 내가 지켜볼 거야.

네.

어이없는 말에 어이없게 대답을 하고 돌아서니 갑갑했다. 엉덩이에 꼭 끼는 치마? 문득 내 옷장에 걸려있는 치마들을 떠올려봤다. 꼭 끼는 치마? 그런 건 없다.

그 날 부터였다. C전자와 거래는 다행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C전자의 신임 사장은 우리 회사를 한 번 더 믿어준다고 했고, C전자의 새 브로슈어를 만드는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야근과 회의의 반복이었다. 그만큼 팀장과 함께 있는 시간도 다시 많아졌다. 다혈질은 원래 그런 것이다. 평소엔 차분하다 못해 친근하다가도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변하는 법이다. 팀장은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다시 순한 양으로 돌아왔다. 한 가지만 빼면.

오늘은 뭐 입었나. 바지네?

모든 회의를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팀장의 습관이었다. 그래야 팀원들의 긴장도 풀어지고 아이디어도 잘 나온다는 것이 되도 않는 농담을 던지던 팀장의 변이었다. 벌써 며칠째 팀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팀장의 유머 소재는 '은주씨의 하의'였다.

오늘은 뭐 입었나. 바지네?

팀원들이 웃는다. 이대리, 진수씨, 강대리는 그렇다 치자. 입사 동기 동수, 너마저 웃는다. 내 눈치를 보며 난처함을 안듯 얼굴을 찌그리는 것은 경미씨 밖에 없다.

그러게요. 은주씨는 청바지가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하하.





이런 맞장구까지. 제일 친하고 잘 지냈던 친구. 그래. 선배 누나 돌잔치 이후 다시는 하지 말자던 친구네 집 경조사 봉사도 동수의 큰 아이 돌잔치에서 깨졌는데. 처음엔 동수에게도 어쩔 수 없는 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수와 팀장의 짜짜공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팀장의 회의 자리 첫 농담은 변하지 않았다. 회의를 시작하고, '오늘은 뭐 입었나, 바지네?' 농담이 나오고, 팀원들이 웃고, 나는 난처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나면 동수를 불러 화를 냈다. C전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두 주를 꼬박 그렇게 보냈다.

좋다고 맞장구라도 치지 말라고. 나 당황하는 거 안보이니?

누가 입고 오랬냐. 너도 팀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온 거였잖아. 자업자득이지. 그냥 옷자고 하는 말이잖아. 맨날 나한테 짜증내고 뭐냐. 정 그러면 팀장한테 말 하든가.

동수의 말을 따르자면, 이 상황은 그 날 그렇게 웃을 입었던 나의 실수 때문이었다.

팀장이 나에게 치마 타령을 했던 그 다음날, 난 정말 회사에 (적당히 긴) 치마를 챙겨 입고 갔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심지만 그 때 내 생각엔 벗으라는 것도 아니고 입는 건데 못할 것도 없겠다 싶었다. 팀장이 나를 불러 치마를 입으라고 했던 그 날, 그는 퇴근시간까지 나의 '웃'을 갖고 짜증을 냈고, 남자 팀원들은 갖은 말들로 팀장의 비위를 맞췄다. 그 날 팀장의 짜증을 종합하여 추려보자면 나는, 나의 옷차림은, 면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여직원인 나는, 중소기업의 애환과 무능력의 상징이었다.

그 여직원 말야. 알지? 응? C전자 박상무 비서. 개가 내가 그 회사 들어갈 때 마다 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알죠.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몸매 좋고 얼굴뺨로 비서일 하는 주제에 뺨도 아닌 게 정말.

무시하세요.

우리도 사장님한테 말해서 인테리어 싹 바꾸고 팀장실도 제대로 꾸리고 여자애들 웃도 좀 입힐까봐 응?

아 그러게요. 사장님 그런 거 보면 진짜 무심하세요.

맨날 티 쪼가리에 바지입고 저게 뭐야 저게.

원래 디자인 회사는 복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신입사원이던 나를 격려하던 팀장이었다. 풋풋한 여대생 느낌이라며 좋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옆에서 적절하게도 잘 대꾸하

던 동수는 정말, 일주일을 가야 바지 하나 티 하나로 출근하는 동수는, 아니, 그의 옷차림은 둘째라고 해도 대학 졸업하고 만난 사람 중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수네! 그 때부터 그에게 묘한 배신감이 들었다. 그 날 밤, 집에 가서 티 쪼가리가 넘치는 내 옷장이 아닌 언니 옷장을 뒤졌다. 스튜어디스 치마. 짝, 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끼는 치마를 골랐다. 치사해서 보란 듯이 입어주마 싶었다. 정말 입으면 다시는 그런 이상한 소리는 안하겠지. 그래. 꼭 팀장 말 때문만이 아니라 입어봤더니 예쁜 것도 같았다. 한 번 입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그러니까 팀장이고 뭐고 일단 입으니 내 눈에 보기 좋았던 거다.

뭐야? 은주씨 치마 입었네?

네...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마. 내가 괜히 미안하네. 허벅지 굽어서 못 입는거 뻔히 아는데 말이야. 여러분 미안해~.

치마를 입고 회사 문을 들어서서 나를 보자마자 팀장은 웃기 시작했다. 그의 그날 첫 농담은 '은주씨의 치마' 였다. 팀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사과하는 그의 모습에 남직원들은 넘어가게 웃었고 난 다시 한 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치마 입은 모습이 이상하다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내 착각이 문제였던 것인가. 그날, 내가 회사에 처음으로 아가씨 치마를 입고 오던 날 이후, 나의 하의는 '괜찮은 유머 소재'가 되었다. 내 다리의 굵기까지도.

\* \* \*

언니 바보예요?

뭐?

C전자 프로젝트의 마지막 회의가 있던 밤, 회식자리였다. 경미씨는 화장실을 가던 나를 쫓아와 별게진 얼굴로 쏟아부어대기 시작했다.

언니 진짜 바보 맞죠. 왜 화를 안내요?

내가 뭘.

진짜 언니는 기분이 안 나쁜가봐요. 난 옆에서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데. 남직원들이 언니 다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화를 내라고요.

그냥 좀 민망한 거야. 그냥 그래 난 괜찮아.

한 두 번이 아니까 그렇죠. 나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니까 다섯 달은 됐겠네. 살쨍다고 놀려 미련하다고 놀려 너 같은 여자 누가 데려 가냐고... 언니한테 다 그러는 거. 그

저 다 성희롱이에요.

야 오버하지 말고 들어가.

화가 버럭 났다. 성희롱? 살찼다고 놀리고 치마 입었다고 놀리는 게 성희롱이면 난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갑자기 취한 얼굴로 '언니'라는 말까지 써가며 화를 내는 경미씨의 행동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런가. 성희롱?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설마. 동수가 나에게? 이 대리가? 팀장이? 아니다. 조금 개념이 없는 사람들일 뿐이지 악의는 없다. 근데 무슨 성희롱이란 말인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다. 경미씨의 얼굴은 나를 쫓아왔을 때보다 더욱 붉어져있었다. 머리를 뒤로 넘기며 씩씩거리고 있는 경미씨 옆으로 난처한 표정의 이 대리와 알 수 없는 표정의 팀장이 앉아있었다. C전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고 왔던 그 날의 표정보다 더 못 봐줄 지경이었다. 동수는 알 수 없는 입모양으로 나에게 무어라 하고 있었다. 다른 남직원들은 나의 등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사과 하시라구요. 네?

경미씨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했다.

경미씨 많이 취했네. 이제 그만해요 팀장님도 계신데.

동수가 경미씨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경미씨. 많이 취했다. 내가 잘못했어. 응?

동수에 이어 다른 남직원들이 하나 둘 경미씨를 달래고 분위기를 바꿔보려 간간힘을 쓴다. 팀장은 여전히 똑같은 자세로 아까 그 표정을 하고 앉아있다. 이 싸늘한 분위기의 원인이 경미씨가 아까 나에게 했던 말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이든 해야 한다.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멍하니 고민하는 사이에 경미씨가 가방을 꾸리고 외투를 입기 시작했고, 먼저 들어가 보겠다는 말을 하고 휘하니 술집을 나갔다. 이제 나와, 남직원들만 남았다. 더 난감하다. 정말 그 이야기 때문이라면 어쩌지?

은주씨.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나한테 직접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왜 순진한 후배 시켜서 사람들을 놀래고 그러냐. 은주씨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응? 안 그래?

찌그러진 팀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래 은주씨. 좀 그러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다 동기 못 챙겨준 내 탓인 거 같다. 내가 사과할 테니까 앞으로

경미씨한테 함부로 그런 말 하고 그러지 마.

웅얼대고 있던 동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황당했다. 하려던 말이 저 말은 아니었을 텐데. 난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모두들 나를 지켜본다. 나를 놀리던 팀장이 불쾌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그런 단어를 써서 입으로 뱉어내고 구제받고 싶은 그런 불쾌감은 아니었다. 그럼 뭐였지? 경미씨 말대로 그냥 성희롱? 그래서 내가 삭히려 했던 걸까?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내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음란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니까.

팀장님!

팀장이 일어난다. 다른 남직원들도 일제히 일어나 지갑을 꺼내는 팀장에게 매달린다.

나, 같게. 있어봤자 불편할 거 아니야? 술 따르라고 했던 것도 이를 같겠다 싶어 무서워서 못 있겠어. 나 참. 안 그래? 응?

우르르. 남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팀장이 술집 문을 나섰다. 몇 명은 먼저 가겠다고 팀장을 따라 일어났다. 파하는 분위기가 되니 하나 둘 씩 사라지고 결국 동수와 나만 남았다. 팀장이 나간 이후로 계속 나만 째려보고 있던 동수.

너 진짜 뭐냐.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결국 이렇게 후배 시켜서 복수를 해? 경미씨 그 말 나한테 들으라고 시킨 거지. 아니야?

뭐가. 응? 나도 황당해. 경미씨가 아까 나 화장실 갈 때 쫓아오면서 화 좀 내라고 그러더라. 남직원들이 나한테 막한다고. 나 우리 팀 직원들한테 그런 불만 없어. 좋다고. 그래 너한테 해댔던 건 네가 너무 나는 안중에도 없이 팀장한테 싸바싸바 하는 게 화가 나서 그랬다 왜. 너 같으면 안 그러겠냐? 팀장이 너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팀장 편에서 베시시 웃으면서 동조해봐. 넌 안 서운하겠냐고.

농담이잖아 농담. 응? 농담인데 뭘 그러냐고. 다 분위기 좋게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너는? 그걸 못 알아 듣냐.

아무튼 내가 경미씨한테 시킨 거 아니라니까. 나도 억울해. 뻘어 가서 니 마누라나 챙겨.

다시 쫓얼대는 동수를 남겨두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아직 배도 다 못 채웠는데. 허기와 억울함과 황당함에 서러워졌다. 동수가 그렇다 치자. 내일 사무실에서 팀장 얼굴을 어떻게 봐야하나. 또 경미씨랑은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근데 무슨 말을 하지?

\* \* \*

한참 정신없이 걷고 있으려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 건너편에 서있는 남자들 한 무리. 우리 팀 직원들이다. 깔깔깔 거창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 사람들이 10분전까지 심각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댕나 싶다. 팀장도 함께 있다. 팀장이 2차를 쓸 모양이다. 동그렇게 모여 있던 무리들은 어디론가 함께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팀장님을 부르며 해맑게 달려오는 동수가 보인다. 동수도 함께, 아마도 그들은 2차를 갔을 거다. 돈독하게.

\* \* \*

편의점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샀다. 온수를 붓고 라면이 익기를 기다린다. 팀원들이 사라진 골목길을 쳐다보며, 이 묘한 감정이 뭘까 들쭉서본다. 팀장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간 것은 비상사태다. 갈수록 서운해지는 동수, 그리고, 경미씨가 들어온 다섯 달 내내 직원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팀장이 나를 놀리기 시작한 것은 3주밖에 되지 않았다. 팀장이야 다혈질에 화가 나면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보니 내 다리를 계속 지켜봤는지 모른다. 허벅지가 굵어서 치마를 못 입는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할까. 똥똥하다는 말? 가끔 이대리가 몸매 관리하라며 자기 부인이다니는 관리실 전단지를 가져다주긴 했다. 이대리도 원래 그런 사람인가. 여자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박대리. 그가 결혼 전 연애기를 늘어놓을 때면 늘상 은주씨 정도면 생활력이 있으니까 사귄 만하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 그건 좀 기분이 나빴다. 그래. 점심시간에 잠자리 이야기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왜 지들 성생활을 내 앞에서 까발리고 그럴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일일이 내가 성희롱 피해자라며 화를 내야 하는 걸까? 성? 희롱?

\* \* \*

사무실 문을 열었다. 팀장의 자리는 사무실 입구에서 일직선 방향이다. 사무실 문을 열면 직원들의 출근 순서를 파악하기 위한 팀장의 눈동자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웃어줘야 할까. 차라리 오늘 하루쯤은 무시해야 할까.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경미씨 말만 듣고 빠져서 나에게 막 말했던 팀장은, 원래도 그렇지만, 존경하고 웃어줄만한 사람도 못되잖아. 문을 여니 복잡한 마음과 달리 사무실은 조용했다. 각자 자리에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어색한 모습이란.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일을 대체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주 정신을 놓지 그래.

응? 아니야?

면목이 없습니다.

김팀장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응? 일도 못해 팀원 관리도 못해. 이제 보니 성격도 이상한가봐?

죄송합니다, 사장님.

당신 만날 대기업에서 왔다고 잘난 척하고 다닌다며. 여직원한테 성희롱도 한다며. 응?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일개 직원한테 그런 보고까지 받아야겠어?

죄송합니다.

당장 짐 싸. 농담 아니야. 알지?

팀장은 질린 얼굴로 허리를 반쯤 수그리고 입술을 축여가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장은 화를 내는 와중에도 간간히 팀원들을 훑 훑 둘러봤다. 성희롱? 나를 찾는 건가? 짐을 싸라는 말, 팀원들 앞에서의 면박. 팀장을 바닥까지 짹짹 끌어내린 사장은 헛기침을 하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유유히 사라졌다. 팀장은 반쯤 숙였던 허리를 다시 90도 가까이 숙이며 사장에게 인사하고 맥이 풀린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본 중 최악의 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반자동적 인사말이 왜 그날은 '저 왔습니다'로 튀어나왔던 것일까. 어쨌든 팀장도 남직원들도 동수도 경미씨도 인사를 하는 나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날 오전시간은 모두 묵묵히 자기 일에 매달렸다. 익숙하게 팀장이 원하는 점심을, 우르르,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자기 일에 매달렸다. 퇴근시간 5분 전. 팀장이 짐을 꾸리더니 일이 있다며 먼저 퇴근을 했다. 팀장이 나가자 모두들 술렁였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나는 아니니까 경미씨가 아마도 사장에게 성희롱과 관련된 글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나인 줄 알겠지? 사내 내부고발은 회사 규정에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 경미씨가 모두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어쨌든 팀원들에게 따돌림 받을 것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나 따져본다. 경미씨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나를 노려보며 화를 낼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경미씨가 팀원들에게 했던 '사과하라'는 말은 어찌 보면 내 입으로 했어야 할 말이었다.

야. 뭐야? 진짜야? 팀장이 실수한거야?

그러게요. 팀장이 말도 잘 못하고 오락가락하니까 박상무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끝난 거죠.

C전자를 다니는 친구를 둔 진수가 모가지를 땀, 잘라내는 손시늬를 하며 말했다. 이야기는 이랬다. 회식이 끝난 후 토요일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에 팀장이 지각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날 저녁 남직원들과 2차를 갔던 팀장은 과음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고, 엉망인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나타나 C전자 홍보실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는 것이다. 물론, 남직원들의 이야기에는 본인들이 팀장과 함께 2차를 갔다는 이야기가 빠져있었다.

왜 그러셨지. 그냥 가신 거 아니었어?

좀 속상하셨나보네. 그 날 경미씨랑 은주씨한테 팀장님이 상처 많이 받으셨나봐.

그러게 술도 많이 드시고.

일주일 후 팀장은 부산 지사로 발령이 났다. 옆 팀의 신대리가 팀장으로 승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팀장과 잘 지내보려 노력하던 유부남 대리들은 일찍 승진한 신대리를 시기하는 사람들 대 여전히 '팀장'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의 두 편으로 갈려졌다. 신팀장이 다혈질이 아닌 것에 정말이지 기뻐다. 가끔 웬지 모르게 떠난 팀장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보다 100배는 친절할 법한 신팀장의 행동에 잘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팀장이 잘린 이후, 이제 누구도 나의 외모를 갖고 농담 하지 않았다. 더불어 팀원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혹시 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빼면 그들은 나에게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닐까. 남직원들과 대화는 가끔 애인 생겼냐는 질문을 빼면 거의 비품 관련한 이야기나 어제 본 텔레비전 이야기였다. 나에게 대한 대화들이 사라지니 오히려 편한 것도 같았다. 하지만 여러모로 팀 내 남직원들과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래도 경미씨와는 전보다 친해졌고, 회사생활은 외롭지 않았다.

\* \* \*

근데요 언니, 지금 말하긴 진짜 뭐하지만. 난 진짜 그 누가 말했는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뭐가?

성희롱 말이에요. 팀장이 언니 성희롱한 거. 그거 나 아니거든요. 언니도 난 줄 알았죠?

지난 주 초 식사를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경미씨가 말을 꺼냈다.

뭐?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그러니까요. 난 언니가 맘 변해서 확 지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남자래요 남자.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신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랬어요. 누군지는 말 못해도 언니는 아니라고. 남자라던데요? 그래서 내가 막 관찰해봤죠. 근데 웃긴 게, 열심히 관찰 해봐도 우리 중에 사장님한테 팀장을 일러바칠만한 인물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굴까 정말.

정말 누구였을까. 성희롱 내부 고발자. 정이롭고 멋진 동료? 라는 감동보다 코웃음이 나왔다. 못 먹는 메뉴라도 밥은 함께 먹던 회생정신, 싫은 눈치 못 내기며 잠자리 사정만 천하에 공개하던 우울한 얼굴, 친한 친구 외면하며 아부하던 비겁자. 그렇게도 단단하던 결속체는 참. 팀장이 실수하던 그날 밤, 머리 좋은 누군가가 뒷선에게 보낸 고발 메일 한 통으로 한 번에 날아갔다. 짹짹. 열심히 웃어가며 골목으로 사라지던 한—무리 떼가 떠올랐다.

\* \* \*

성, 희롱이라는 말은 입에 붙지 않는다. 불편하다.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을 당한 사람이 된 것만 같다. 그것이 아니라 는 것도 안다. 이제는, 내가 겪었던 일이 충분히 성희롱으로 이름 붙여질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말이다. 성희롱이라는 말이 불편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나는 그냥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대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지냈을 뿐이다. 다만 조금 더 내 속의 생각들을 길고 긴 실타래를 만들어 풀어냈다면, 더 많은 감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다. 불편한 일을 당했다는 말 보다 그런 표현이 낫지 않나? 바로 그 점에서 말인데, 지금 이 마음으로 세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 감정들을 뽑아내어, 팀장 뺀 세 대, 동수 한— 발길질, 이대리 뒤 통수치기, 진수 뒷담화 좀 날려주고 싶다. 근데 정말 해볼 수 있었을까? 짹짹.

\* \* \*

경미씨 말대로 내가 사과를 받아야 했다면, 가장 받고 싶었던 사람은 동수가 아니었나 싶다. 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팀장에게 가장 화를 냈지만, 난 아니었다. 지금도 나를 외면하는 동수는, 정말 알 수 없다. 어떤 곳에서 다시 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 같은 새끼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하하하. ☹️



# { 내 옆자리 저 미니스커트는 정말 불쾌한 성희롱? }

◎ 성문화운동팀 오매



을 여름, 서울의 한 대학교 인트라넷에서는 수백개의 리플 논쟁이 벌어졌다. 이를하여 "미니스커트 논쟁". 글쓰이는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대각선 자리에서 짧은 미니스커트에 앞뒤가 파진 옷을 입고 향수냄새를 뿌린 여성 때문에 집중을 못해 시험을 망쳤다고 한다. 남자수험생을 표적으로 삼아 방해하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끼친 그 여성의 행각. 많은 지지와 공감의 댓글을 통해 지탄되면서 급기야 '성희롱'이라 명명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과연 성희롱이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논쟁이 이어졌다.

미니스커트가 성희롱이나? 는 논제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매우 희화화하는 대표적인 양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논쟁은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누가 기대있고 누가 등져있는지? 위로를 찾는 이와 억압을 느끼는 이는 각각 무엇을 경험하였고 문제라고 보는지? 답이 명확하거나 설득의 전략이 명쾌하지만은 않다. 꺼내 이야기할 지점이 많아 보인다. 결국 "내 옆의 저 미니스커트, 정말 불쾌한 성희롱?" 이라는 제목을 걸고 지난 10월 30일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과 3차 릴레이시민토론을 열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

**참여자 1 :** 미니스커트와 시험은 상관이 없다. 희생양 찾기일 뿐. 그렇지만 민소매 입거나 옷통을 벗은 남자가 땀냄새를 짝짝 풍기면 나는 불쾌하고, 그들이 쉽게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권력으로 느낀다. 그게 나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참여자 9 :** 토론회의 광고지를 보며 남녀 커플이 대화했다. "저런 상황, 불쾌해?"(여) "시험기간에는 불쾌하지"(남) "왜 평소에는 괜찮고 시험기간에는?"(여)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남). 예의란 무엇일까? 선배에게 물어보니 "상대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이라고 한다.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발제자님께 묻는다. 그럼 미니스커트를 안 입어 주는 게 해결책일까?

**참여자 4 :** 성희롱이 무엇을 규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성희롱의 기준이 성적수치심, 불쾌감이라고 하면서 "저런 행위는 나한테 불쾌감을 주니까 성희롱" 이라는 건 변질이다. 너는 똥똥하니까 내가 불쾌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성희롱이 되나?

**참여자 3 :** 빨간색이 좋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했다. 후배의 옷차림을 보고 나는 빨간색이 청순하고 예뻐보인다고, 빨간색 옷 입은 여자가 좋다고 했다가 성희롱 가해자, 변태로 몰렸다. 사회적인 낙인! 빨간색에 대한 선호는 개인적 취향이고 미감인데, 그걸 왜 사회적으로 이미 특정 의미화된 코드에 연결해서 곱해하는지? 나만의 의미와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드러내고 살지 말라는 것인지?

**참여자 10 :** 자신을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서 '여자로' 취급하는 것, 후배나 동료, 친구가 아니라 그저 '여자' 로 보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게 아닐까. '여자 취급' 이 사람을 참 제약하고, 또 여성회는 차별받는 위치로 만들어버리지 않

나. 남자들이 성희롱 당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여자취급'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것이 그걸 뒷받침한다.

**참여자 7 :**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책임 전가하기도 한다. 상대의 성적결정권을 존중한다고 오늘 해도 돼? 손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보려니, 무척 남성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한다. 남자들을 가해자로 정하고 취급하기 전에 자신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표현해달라. 지하철에서 몸 닿이는 게 싫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참여자 5 :** 그 버스 속 여학생이, 발제자의 성기가 닿았었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 나이 드신 아주머니는 아들 뻔인 사람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지? 어린 여학생은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해자로 몰릴 사람들도 긴장이 있겠지만, 피해자가 되는 게 구질구질하고 너무 두렵고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다.

**참여자 3 :** 법으로 규제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기계적으로 그 내용을 외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기계적으로 o, x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추구했던 목표일까? 그리고 개인의 정신상태까지 규제하게 된다. 이런 걸 개인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만든다는 것... 폭력을 낳고 있지는 않는가?

**참여자 8 :** 어떤 폭력(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폭력'을 낳았다면, 그 때의 '폭력'이란 어떤 폭력인가?

**참여자 6 :** 미니스커트 입는 거 좋아하지만 점점 못 입는다. 치마입을 때 파일이나 가방으로 뒤를 가리게 되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한다. 누가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속옷이 보이지는 않을까... 내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한다. 다른 여자들도 하고 모두가 한다. 남자들은 "가릴 바에는 왜 입고 다니냐?" 라고 하는데, 화가 난다. 너 보라고 입는 거 아니냐! 내가 원해서 입는 거다!

**참여자 12 :** 상대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게 어떤 폭력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연히 혹은 힐끔 쳐다본 내 시선에도 폭력성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만나 폭력이 되는 것은 무슨 원리일까?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그걸 폭력으로 결합하게 하는 고리가 있었을까? 폭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담론적인 차원

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기획된 무엇이라는 것이다.


**참여자 14 :** 여성의 신체, 젊은 여성의 신체는 성적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신체에 가해지는 언행들은 성적인 텍스트로 읽히게 된다. 또 양쪽의 규범이 다 있다. 색시해야 하며, 동시에 수치심도 알아야 할 것. 다리는 보여 주지만 특정한 부위는 보여주면 안되고, 스커트는 짧아야 되지만 팬티는 보이면 안된다. 여자 가수들이 가슴골은 드러내도 실제 옷이 내려가 유두가 드러나면 안된다는 것.

**참여자 14 :** 성희롱 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성적수치심이라는 건데, 성적인 것들과 연관해 가지는 곤혹감? 굉장히 주관적이다. 성적수치심이라는 거 자체로는 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개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성적수치심이라는 건 남녀 간 인식차가 굉장히 크다. 개인의 판단과 성별차이에 따른 인식차이. 이 중 법률은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장치로 만들어졌던 걸까?

**참여자 13 :** 성희롱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되풀이되고 있는지, 근원을 살펴야 한다. 산불이 나면 화점의 남은 잔불을 끄는 데 가장 총력을 다한다. 잔불과 같은 근원을 끄지 않으면 문제다. 남녀의 차이는 크고, 완전한 평등은 힘들다. 행위 하나하나를 쫓아다니고 판단하고 논쟁하게 되고 규제하는 소극적 평등의 추구보다는, 적극적인 평등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직장에서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넘어, 이제 '성희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성적 피해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피해를 문제제기하고 권력관계를 개선하는 힘을 발휘하기보다 논란과 차이 속에서 맴돌고 있는 면도 크다. 규제 준수나 '배려'와 같은 실천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의문해 불착한다. 근원적인 변화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성희롱의 문제제기의 근간을 살펴보자면, 다른 차원에서의 적극적 평등책을 필요하다는 것, 성희롱을 줄이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남성과 여성을 가정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 미니스커트 논쟁에서 시작해 이번 릴레이 시민토론의 의문풀이가 달은 지점이다.

당분간 성희롱 반대운동의 현장에서 이런 나선형의 의문풀이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0년간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규제책을 만들며 일률적인 상식수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의문들을 적극 교류하고 토론할 시점이다. 논쟁과 의문, 문제제기와 해답은 서로를 고양시킬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상의 성희롱 문제제기가 우리에게 준 것 또한 답하기보다 질문하기가 아니었을까. 

#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 반성폭력운동과 만나는 풍경<sup>1)</sup>

◎ 본 상담소 前활동가 정유석

“우리 딸이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폭력 가해자가 마을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딸에게 주의를 주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강간,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건(Megan)의 가족은,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마을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1994년 10월, 매건이 살해된 후 89일 만에 뉴저지주는 유죄판결 받은 성폭력 가해자의 정보를 정부 당국에 등록하고, 지역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소재와 행방을 추적하고 등록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통과 시키게 된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 제정을 추동해 내었고, 이후 90년대 말까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게 된다. 미국의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은 이후 캐나다, 영국, 남아프리카, 호주, 일본, 노르웨이 등지에서 비슷한 입법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 법을 모체로 하여, 2000년 청소년 성보호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외에 가해자의 정보가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택한 유일한 국가로 간주되었는데, 2007년 개정을 거치면서는 열람권자와 공개방법이 보다 제한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반성폭력법 개혁/입법운동**(미국의 경우 1970년대 강간법 개혁운동,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성폭력 특별법 입법운동)이후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성폭력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미디어와 여론의 관심, 정치인들과 관련단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아왔다. 한편, 지역 사회 공지 시스템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 일반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임파워링 하는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재범에 대한 위험, 수사를 보조할 효과적 법적 도구의 필요성,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할 효과적 매커니즘의 필요성(Pearson 1999) 등의 이유들과 성폭력 가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능가하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권리의 중요성(Fodor 2001)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쟁을 가져왔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는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따돌림, 직접적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구적 폭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외에, 이 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쟁들은 일반적으로 (잠재적)피해자들의 보

1) 이 글은 글쓴이의 <헌법적 인권, 죄과 진보주의, 여성주의 접근에서 본 성폭력 가해자 정보 등록, 공개 시스템, 2008 에섹스대학교 인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영화 「여섯 개의 시선 - 그 남자의 사정(事情)」 (감독 정재은, 2003) 중에서

호와 가해자의 인권/헌법적 권리의 보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 법적, 인권적 용어들로 구성되어 왔다. 이에 더해, 위험 관리 정책을 강조하는 규제적 신자유주의 거버넌스(governance)의 출현에 대한 우려가 소위 좌파 진보주의 진영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여성주의적 관점은 시민 자유주의적 시각이 간과해온 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과 젠더화된 권력관계로서 성폭력 이슈를 조명하고자 했던 여성운동진영의 노력과 대치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성폭력 가해자 정보 등록**, 공개 시스템에 대한 법적 논의는 가해자의 기본적 시민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제 인권 논의의 차원에서는 이 법이 시민·정치적 협약과 유럽협약 등 국제 협약에 보장되어있는 가해자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에 대한 권리,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이동의 자유,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 노동과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에 대한 권리 등을 위반하고 있음이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이 권리들 역시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 권리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은 가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받게 된다. 지역적, 국내적 차원에서의 법적 논의는 헌법의 창을 통해 조명될 수 있는데, 가해자 정보 공개법에 대한 헌법적 도전은 주로, 가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침해에 관한 실제적 적법성, 가해자가 적합한 청문, 항소 절차 등의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이중처벌, 불소급원칙 등에 대한 이슈가 주로 다루어진다.

**법적인 비판**이 시민(잠재적 피해자)과 가해자 권리의 이익을 비교하고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한다면, 좌파 진보진영의 접근은 이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법적, 사회적 레토릭(rhetoric)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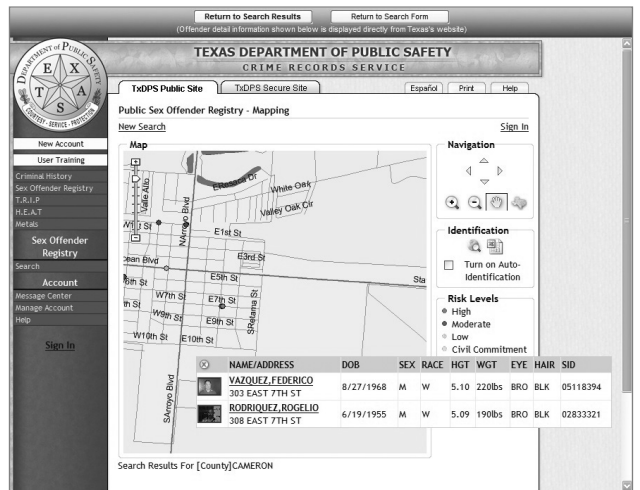


▲ 구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상공개 페이지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도덕적 패닉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 문화 등이 사회적 가치와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 때, 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이에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Cohen 1972), 매카시즘과 911 이후의 무슬림 사회에 대한 공포도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 역시 성폭력 이슈에서 함께 고려해야할 사회경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재범율이 높은(혹은 높다고 알려진) 성도착자, 소아기호 가해자와 같은 부분적 요소에만 집중하면서 이들에 의한 위협을 일반화하고 모든 아이들을 피해 가능군으로 설정하는 광범위한 도덕적 패닉을 형성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형사정책과 사회통제의 관계도 주요하게 지적되는데, 이는 현대 사회가 가해자의 범죄기록 통제를 통해 어떻게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을 구분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견해는 성폭력 가해자 관련법을 통해 학교, 청소년 기관(혹은 일반 시민) 등으로 하여금 잠재적 가해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규율적, 규제적 경향이 비정부 행위자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정부에게 정보제공자의 역할만을 맡길 뿐 일반시민들에게 정치적 권한은 적게 주면서도 범죄, 위험 감소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공동체 정보공시 시스템은 공공의 공포와 무력감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피해자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이는 시민 모두들 잠재적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과 범죄 통제와 감시의 부담을 피해자들과 비정부행위자들에게 부과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을 통치함을 역설한다.

한편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서서는 정부권력 확대를 위해 섹슈얼리티와 법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진보진영의 평가를 공유하면서도, 이 법이 어떻게 반성폭력법 개혁, 입법 운동이 개념화하고자 했던 성폭력의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는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진보진영의 평가가 단순히 형사(범죄) 정책 발전을 통한 사회통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거버넌스와 성폭력범죄 통제의 관계를 다른 일반 범죄 통제를 통한 국가 통치에 단순히 대입시킴으로써 성폭력에서의 젠더 역동을 무시했음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이 입법, 운용과정에서 채택한 원리들은 여성운동이 반성폭력법 개혁, 입법운동을 통해 관철시키고자 했던 가치와는 대립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뉴저지주의 가해자 위험도 평가척도를 살펴본 Corrigan(2004)의 분석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2)</sup>

먼저, **여성운동이 피해자들 사이의 구분과 차별적 대우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달리, 가해자 등**



▲ 미국 텍사스 주의 신상공개 웹사이트. 가해자의 거주지 지도에 점으로 표시된다.

2)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 한국의 관련 법안과 뉴저지주의 가해자 위험성 척도의 내용과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청소년위원회의 가해자 위험군 평가척도 등 참고.

록, 공개 시스템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형태로 입법된 것의 문제이다. 이는 특정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인 듯하나, 어떤 피해자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역학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해자 등록법이 청소년 관련법에 편제되어있고, 청소년 대상의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청소년위원회의 성폭력 가해자 위험군 평가척도와 뉴저지주의 가해자 위험성 척도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해자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때 피해자 나이 척도는 단지 나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해자의 성적 행동과 성력에 중점을 두는 성폭력 일반에 대한 전형적 법적 태도와 연동되며, 또한 이러한 태도는 무력한 피해자 이미지-어린이 피해자의 그것-와는 조화되지 않는 성인 피해자에게 최협의설을 적용, 최대한의 저항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과도 긴밀히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성인 대상의 가해자 역시 등록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두 나라 모두, 피해자의 나이, 범죄유형(물리적 힘의 정도, 접촉 정도 등)에 따라 위험성을 다르게 평가하면서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기나 극단적 폭력을 수반한 강간’으로 전형적 성폭력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의 가해전력 등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아는 관계에서의 고소, 유죄율이 낮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아는 관계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좋은 피해자와 나쁜 피해자를 구분하고 일반 강간, 단순 강간으로부터 진짜 강간을 구분하며, 피해자들 사이의 다른 차이를 문제화하고자 했던 여성주의의 노력을 되돌려 놓는다.

**반성폭력운동이** 주요하게 문제제기했던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법을 통해 다시 흔들리게 된다. 이는 성폭력을 정상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문제시하고자한 여성운동진영의 노력과는 달리, 가해자 등록 시스템이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과 병리학적 이유의 결과로 보고 있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우려는 뉴저지주 매건법의 경우 명확히 드러나는데, 입법목적과 매뉴얼을 통해 소위 ‘Myth on Crazy Rapist’ 를 채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위험도 평가 과정이 “정신 건강과 법률 전문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유추되도록 하고 있어, 성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접근보다는 개별사건에서의 역동을 중시하는 심리학적 견해 및 언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위험성에 대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된다.(Wells Motley 2001)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이슈의 비정치화, 병리화의 경향은 신상공개법 제,개정 과정 이전에 성폭력특별법 제정단계와 이후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정부의 백러쉬 과정 등에서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례로, 정부가 2005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성폭력상담소들의 역할을 초기상담과 연계로 제한하고, 성폭력 이슈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될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역할을 의료적, 심리적 지원 모델에 근간한 정부주도의 성폭력방지센터로 이관하고자 했던 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상공개법의 경우도 운영의 세세한 방식과 운영주체의 가치관 등이 자세히 검토될 일이다.

**특정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성폭력에 대한 병리적 접근 이외에도,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 시스템은 가족제도를 더욱 보호하고자 하고,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기준을 강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이 어린 여자형제, 생물학적 자식, 양자 혹은 배우자



의 자식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장 낮은 위험군(위험도 0점)에 속하게 되고, 반면 낯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경우 가장 높은 위험도를 가지 것으로 구분되는 뉴저지 평가척도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근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정보 공개여부는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성폭력상담소들에 의해서도 피해자 권리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주장되어 왔는데, 위험군이 낮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과 피해자에게 미칠 우려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공개대상 정보의 제한 등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을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 등록, 공개법은 근친성폭력, 아는 관계의 성폭력을 덜 위험한 것으로 특정짓고 심지어는 괜찮은 성폭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이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잇고 소위 사적,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드러내고자 했던 여성주의의 노력과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

**등록대상과 기간**, 공개범위 등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해자 등록, 공개시스템은 특정 성폭력 가해자로부터의 공동체 전반과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덜 위험한 가해자와 더 위험한 가해자를 구분하는 방식, 법이 착안되고 작동되는 전제 등에서 닮아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 미국의 강간위기센터들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왔고, 다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가해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끝까지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한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운동진영에서는 기존의 법제도와 이 법을 둘러싼 가해자 인권논의 등에 피해여성의 경험이 반영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법 제·개정 시 적극적 지지의견을 피력한바 있으나, 현재의 논리와 자구적 방어권 논의에 머무르는 정도로, 이 법이 채택한 전제들과 이로 인한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결과적으로 여성주의 진영이 목적인 것과 어떻게 달라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성폭력 개혁, 입법운동이후 성폭력 이슈 자체에 대한 담론은 과연 발전이 있었는지, 새롭게 출현하는 성폭력관련, 성폭력 가해자관련 법안들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이와 같은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할 여성주의적 언어를 갖추지 못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질문해볼 일이다.

**가해자 관련 법안**에 대한 법적, 진보주의적 논의들이 풍성한 반면, 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가해자 관련법이 여성주의 반성폭력 개혁, 입법운동의 수사학을 기초로 구성되었다고 얘기되거나 혹은 반성폭력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성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시스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법적, 진보주의적 접근이 갖는 이분법적 한계-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권리의 충돌 혹은 강압적 정부권력과 가해자, 시민의 충돌로서 이슈를 파악하는-를 넘어 이러한 견해가 간과한 젠더 역동성을 드러내고, 이 법이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을 어떻게 재형성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후 제도화와 비판력 약화, 성폭력 이슈에 대한 대응담론 정체 등의 어려움을 딛고, 반성폭력운동진영과 학계 모두, 다시 힘을 모아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

##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 ◎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컴퓨터  
SURVIVOR'S VOICES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해야 할까?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고소인인 피해자가 필수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 중 가장 최악의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인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이다. 잠시 L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L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S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S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것을 약속했고 이제 막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L양에게는 이번 계약이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일이고, 본인의 인생을 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 싸인을 하지 않은 S군을 노심초사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어느 날 L양과 S군은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L양이 취기가 돌 무렵 S군이 강간하였다. L양은 생각했다. 지금 강간으로 고소할 것인가? 그렇다면 생사가 달린 사업은 물건너 가는 것이 된다. 며칠을 고민하다 L양은 우선 강간은 접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전과같이 대하여 사업을 위해 계약을 촉구했지만 S군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계약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며 L양의 연락을 피했다. L양은 미뤄두고 있었던 고소를 진행했다.”

L양은 고소 초기부터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동기에 대한 끊임없는 추궁을 받았다. 사건당일의 음주량, 가해자가 끌고 갔던 모텔에 대한 수사, 모텔방의 깨진 컵과 같은 증거, 증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왜 S군이 L양에게 접근했는지, 정말 거액의 투자금이 있었던 것인지, 20만원 고시원에 살고 있는 S군의 경제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등등 가해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관은 L양에게 물었다. “아니 S군이 투자했으면 고소 안했겠네?!”

L양은 상담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 그렇다. 살아야했기에. 정말 S군이 투자를 했다면 그냥 강간은 없던 일로 참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왜, 누가, 어떠한 논리로 L양을 비난할 수 있는가? “참을 만 했으니 강간을 당하고도 고소를 안했겠지. 투자를 안 하니 마음이 틀어졌구만.” 이 말.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는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수사관이 한 얘기 그대로이니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난 L양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L양은 고소를 취하였다. S군은 수사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기세등등함을 등에 업고 고소를 취하하

지 않으면 무고죄로 걸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L양은 가해자의 협박을 경찰에 이야기 했지만 오히려 “나쁜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넣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며 L양을 나무랐기에 더 이상 L양은 수사당국에 희망을 걸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L양에게 내려진 죄명은 ‘무고죄’였다. 검찰은 이제 경찰단계에서보다 더 당당해졌다. 그리고 L양을 혼계했다. L양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강간피해를 쉽게 취하하면서, S군의 법적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점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었다. 일관되게 L양의 ‘피해동기’를 의심하던 경찰과 검찰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실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피고소인이 된 L양의 무고죄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된 S군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내가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 알았다. L양에게 이런 피해까지 온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한다. 그날 L양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도망을 가기도 했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선처를 부탁한다.” 라는 증언을 했다. L양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우리는 그나마 끝까지 나쁘지 않은 S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재판을 나왔다.

본 상담소는 L양의 사건지원을 통해 ‘친고죄가 과연 누구의 법익을 대변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대체로 성폭력피해자의 명예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 즉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실제 고소를 시작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위와 같은 보호법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은 L양의 사례가 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곳에서는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다. ‘피해동기’가 주요한 화두인 친고죄라는 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제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피해자는 고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합의도 선택할 수 있고, 취하도 가능하다.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써 정보 열람권이 있으니 피해자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밀저야 본전이니 고소취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보호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은 피해자의 이중생활 혹은 은둔생활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L양은 성폭력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했던 자신을 무척이나 원망하고 있다. 고소과정에서 겪었던 2차 피해의 고통 때문이다. 그리고 합의와 고소취하를 권하는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따랐던 자신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무고죄’ 가해자로 법정에서 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마지막 S군의 진술이 없었다면 L양은 아마 무고죄로 ‘범죄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L양은 그나마 S군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피해를 입은 자신에게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찰조사를 거치면서, 편견에 가득 차서 자신을 되레 무고죄로 고소한 검찰을 겪으면서, 사건 ‘진실’의 열쇠는 가해자 진술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빛 있는 사람은 성폭력피해자가 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어느 내담자의 말이 뇌리를 스친다.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통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발견되는 순간, 성폭력사건의 사실관계를 통한 진위가 초점이 아닌 ‘추측되는 피해자의 고소동기’에 대한 수사 초점이 옮겨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고소를 할 만한 사건인가를 판단하는 전권을 수사관에게 주는 것과 같다. 고소를 할 만큼 피해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가? 사회·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 수사관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L양과 같은 피해자는 또 다시 생겨날 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1) 이미경·이경환, 2008,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토론회』, 법무부.



# 수능 이야기

◎ 水

얼마 후면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수능능력시험을 보는 날이다.

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시험을 보았다. 수능시험 며칠 전 그 사람은 저녁식사 때 유난스런 걱정을 시작했다.

“애 시험장이 멀어서 걱정이야,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전날 가서 자고, 다음 날 시험 보러 가게 할까봐.”

“왜? 거기까지 가서 잔대? 차도 있는데”

엄마는 따지듯 물었다. 그 속에는 '너 딸 데리고 호텔에서 그 짓 하려고?'라는 뜻이 담겨있는 듯 했다.

“애 시험 보는 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 사람은 밥을 입에 넣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나를 쳐다보며 내 핑계를 댄다. 그 순간 모든 가족은 내가 그 사람과 호텔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더 이상 엄마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다들 그냥 묵묵히 밥을 먹었다. 더 얘기했다가는 또 그 사람이 엄마를 죽도록 때리고, 온 가족이 괴물로 변한 그를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입속에서 밥알들은 맛을 잃고, 굴러다닌다. 토하고 싶다.

그 사람은 그 후, 밀월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들뜬 일상을 보였다. 시험장 근처에서 가깝고, 깨끗한 호텔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듯 '시험당일은 시험장까지 차가 막히거나 늦을 수 있으니 전날 그 호텔에 가서 자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자' 고 했다. 호텔의 스위트룸을 잡아서 내 수능시험을 편하게 보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의 계획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그 짓을 해봐야지, 분위기도 좀 내봐야지' 하는 의도로만 보인다.

나는 수능시험 전날, 난생 처음 호텔에 들어섰다. 교복을 입은 딸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은 로비에서 아빠 같은 말투로 호텔직원에게 말한다.

“우리 애가 내일 수능시험 보거든요, 조용한 방으로 주세요.”

수능시험을 보기 위한 딸을 위해 이렇게 좋은 곳까지 준비하는 배려심 깊은 아빠의 표정을 애써 지어 보인다.

“여기서 ○○고등학교 가깝죠? 내일 아침에 늦지 않게 시험 보러가게 하려고 데려왔거든요.”

그 사람은 스위트룸 열쇠를 받아들고, 방으로 가는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는 안내해주는 남자에게 자세하게 설명까지 한다. 나는 말없이 안내해주는 사람과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나는 늘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여관 같은 곳에 갈 때면 짧은 순간 스치는 여관 문 앞의 주인들의 눈빛이 괴롭다. '재, 원조교제 아닐까? 어린 것이 벌써부터 이런 델 들락거려? 재 부모는 저 사실 알까?' 하는 표정들, 그러면서도 조용히 그냥 아빠라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돈을 받고, 열쇠를 내어주는

저 인간들, 그들도 밉고, 싫다. 그리고 말해주고, 싫다. '저기요, 적어도 아빠는 제가 여관 들락거리 는 거 알거든요, 이 사람이 친아빠예요.' 말해주고 싶다.

나와 그 사람을 스위트룸까지 안내한 이 젊은이도 예외는 아니다. 문 앞까지 안내를 해준 후, 저 문 안을 들어서면 뻘하겠지 하는 표정이다. 나는 그런 것이 느껴진다.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더러운 느낌이 든다. 기분 나쁘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데, 왜 모두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뻘치 않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젊은이는 가고, 나와 그 사람만 문 앞에 남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사람은 신이 난 모양이다. 엄마, 오빠, 동생들 눈치 안보고, 신경 안 쓰고, 어떤 알리바이도 만들지 않고, 맘 편하게 기분을 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푼 표정이 압권이다. 그런 표정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빙긋 웃으며 스위트룸의 문을 열고 있다. 아무튼 나보고도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준비 다 되었다'는 뜻인지 2중, 3중 의 문고리들을 모두 잠근다.

*"피곤하지, 우리 샤워부터 하고, 한번 땀나게 하고 푹 자자, 일어나서 정리한 것 한번 훑어보고 내일 시험 보러 가면 되지"*

나는 말없이 짐을 풀고, 욕실로 들어갔다. 속으로는 '뭘 한번 해, 뭘, 너는 내일 내가 시험인데도 그 짓을 꼭 해야겠냐?' 라는 말들이 밀려나오고 있었지만, 다시 목 아래로 집어삼켰다.

샤워실에 들어가 거울 속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었더니, 불뚝한 배를 내밀고, 배 밑으로는 흉하게 생긴 무기를 내밀고, 훌쩍 벗고 서있다. 그 사람은 한껏 기대에 부푼 얼굴로 말했다.

*"같이 샤워하자"*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처럼 그것만 보인다. 꼭 나를 고문하기 위한 도구를 붙이고 서있는 사람처럼, 눈은 빨갛게 핏발이 서서, 이젠 또 뭐하지는 거니, 싫어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은 정말 잔뜩 흥분했는지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고, 기분이 좋은지 가벼운 걸음으로 욕실에 들어선다.

'너나 해라, 이 새끼야, 너는 정말 그러고 싶니? 정말 그렇게 짐승도 상상 못할 짓을 계속해서 어쩔 그렇게 잘도 해내니? 니 불뚝한 뺨속에는 그 짓거리를 위한 더러운 정액만 꽂았냐?' 라는 말들이 내 속에서 꾸역꾸역 올라왔다. 내 속의 화, 욕지거리들이 얼굴에 묻어 나오는 걸 그 사람이 알아챌까봐 그러면 또 뭘 짓을 할지 몰라서 고개를 확 돌렸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서있던 그가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디를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허리가 무척 아팠다. 주먹으로 등 뒤를 펌퓌 쳤던 거 같다. 얼굴이 검붉어지고, 미친개 같은 눈을 해서는 이를 짹물고 지랄을 시작했다. 순간 그 사람의 손도, 키도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것 같았다. 정말 그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 커다란 손으로 내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린 후 욕실에서부터 거실로 질질 끌고 나왔다.

*"야, 이년아, 거울에 니 얼굴 봤어, 얼굴을 찡그려? 니가 뭐 성모 마리아라도 되냐?"*

머리가죽이 벗겨진 것처럼 화끈거렸다. 거실까지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힘으로 끌려나왔다. 그 사람은 내 온 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아니 밟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다.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니놈 딸이거든, 그래서 니가 성모 마리아랑 뭘 짓을 하든 나한테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거든, 개쌍, 미친새끼야, 차라리 성모 마리아랑 그 짓을 해라'

입을 열어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얼굴, 허리, 등, 다리, 팔, 배, 가릴 것 없이 막 때려서, 맞고 있

는 동안은 입이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못 낸다. 맞을 때 소리 지르는 크기에 따라 매의 강도는 더 높아진다. 갑자기 맞을 때 났던 내 비명소리가 신경 쓰인 모양이다.

“소리지르지 마! 이년아,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소리지르면 더 패줄 테니 해봐, 한번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를 딱 깨물고, 조용히 내지른다. 그는 입술까지 파르르 떨며 내는 목소리로 나를 질리게 한다. 그리고 정말 그냥 내 힘으로 죽고 싶어지게 만든다. 내가 너한테 죽느니, 내 손으로 죽는다. 아니 내 손으로 너 죽이고, 나 죽는다 하고 싶다. 하지만 난 너무 힘이 없다. 왜 이렇게 약할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펍펍 소리가 나게 때리더니, 지쳤는지 침대에 앉아 쉰다. 나는 가능하면 얼굴을 맞고 싶지 않아 등골째 몸을 마는 벌레처럼 몸을 말았다. 계속 맞으면 처음 맞을 때는 아팠던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다 정신을 놓아버리면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런지 정신이 더 또렷하다.

침대에 앉아 쉬면서도 그는 입으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늘어놓는다.

“니 에미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알아? 지 에미 닳아서 버스 타면 남자새끼들 쳐다보느라고 눈 희번덕거리고, 니 에미가 얼마나 갈보 같고, 창녀 같았는지 알아?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넌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놔서 시집도 못 가, 누가 널 데려가겠냐? 좀 잘 해주면 기어올라, 아주. 이게 나를 무시해? 니가 뭐 깨끗한 년이나 되는 줄 알아? 거울에 비치는 거 다 봤어 이년아, 어디 얼굴을 찡그러, 아주 무슨 벌레 보듯이”

쉬면서 힘을 되찾았는지, 이제는 벗어놓았던 바지를 들어 아주 천천히 허리띠를 빼기 시작했다. 허리띠가 스르르 풀려 나오자 그것을 한쪽 손에 몇 바퀴 감고 있다.

“너 오늘 맞 좀 봐라.”

나는 순간 오줌을 쏘다. 거실 흥건히 오줌을 싸버렸다. 일부러도 쏘고, 모르고도 쏘다. 오줌이 나올 줄 몰랐기도 했지만, 온 몸에 힘이 풀려버렸다. 예전에 한 번 반 죽도록 맞는데, 오줌 싸러 가고 싶다는 말도 못 하고 맞다가 오줌을 싼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가 매를 때리다, 멈췄던 적이 있다. 그걸 노렸던 것도 있다. 제발 허리띠로는 맞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에게 20년 넘게 매를 맞았던 엄마도 그 사람이 허리띠만 풀면 기절할 듯 무서워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단단히 손에 허리띠를 감아쥐고 있었다.

“이제는 오줌 싸는 척까지 해, 그러다고 내가 너 불쌍하게 생각할 거 같아. 야까 거울 속에서 니가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봤는지 알아? 내가 너 수능시험 보게 할 거 같아, 너 대학교 뭐고 없어, 집에 처박아 놓을 거야, 저년이 대학가면 나를 얼마나 더 무시할거야? 너는 내가 망쳐놔서 시집도 못가, 내 애나 낳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어, 이년아. 내가 수능시험 보게 하나봐,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시험 보러가게 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이년아”

‘어? 알았어? 야, 너도 그런 거 알아볼 수 있구나, 벌레보다 못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그럼 내가 그 동안 니가 한 짓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너를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그것도 알아? 그런 눈빛이 싫어? 내 눈빛이 싫어? 내가 니놈의 나쁜 짓을 싫어하는 게 싫어? 잘못 된 거니? 야, 그리고 이 새끼야 니가 마음이 약해서 지금 이려고 있냐? 나는 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일그러진 내 얼굴표정에 대해 욕을 하며, 바지에서 뺀 허리띠를 오른손에 더욱 단단히 감고 있었다. 때릴 준비를 마친 그는 허리띠로 채찍질 하듯 내리쳤다. 동그랗게 말린 내 몸의 껍질을 뜯어내기 위해 때리는 것 같았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껍질들이 차라리 벗겨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텐데.

“소리 지르지 마”

그는 힘주어 악문 입술로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소리 내지 말랬지”

더 세계 때린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지금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아프다”는 말로 이 지면을 다 채우고 싶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프다는 말밖에 이때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다. 무슨 수식어를 붙이거나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 때의 내 아픔이 가볍게 느껴질까 봐 싫다. 허리띠의 가죽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날아와 내 살에 ‘ㅏ’ 감겼다 떨어져 나가곤 했는데 그때그때 감각이 달랐다. 샤워하려고 벗은 몸에 물까지 적당히 묻어 채찍질을 위해 준비된 몸 같았다. 갈수록 아프고, 색다르게 아프고, 늘 처음 맞는 것처럼 아팠다. 내 피부에 감각이 있다는 게 화가 날 정도다. 내 피부는 왜 살아서 이 모든 고통을 다 느껴주는 것일까 원망스러웠다.

허리띠로 한참을 맞는데, 소리 내지 말라는 그 사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 목에서 조금씩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자 매질은 더욱 거세졌다. 오후에 시작된 매질이 어스름 저녁까지 이어진다. 매질을 시작할 때는 불을 켜지 않아도 실내가 밝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불까지 켜고 나를 때리고 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는 때리고, 나는 맞고 있다. 맞는 건 정말 힘들다. 그런데 그는 때리다 힘이 드는 모양이다. 중간 중간 쉬어가며 때린다. 딸이 아빠에게 강제로 그 짓거리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지칠 때까지 때리는 이걸 도대체 뭐로 만들어진 인간이나?

허리띠로 실컷 때린 후, 그는 또 잠시 쉬면서 다른 궁리를 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나를 들어서 침대 모서리나 의자, 테이블 다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해대며 나를 번쩍 번쩍 들어 던지고 있다. 이걸 아무리 필사적으로 내가 몸을 말고 있으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모서리에 허리 같은 곳이 처박힐 때면 순간적으로 찢릿하고 전기가 온몸으로 통했다. 이제는 얼굴이 고 뭐고 가릴 수도 없고, 마구 던져졌다. 이리 저리 던지면 날려 다니며 아무 곳이나 내 몸 곳곳이 부딪혔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인형, 아니 물건이었다. 어릴 적 가지고 놀다 싫어지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남을 쥐버릴 수도 있던 무생물의 인형,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숴버릴 수도 있는, 오로지 놀이만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인형들처럼, 그 사람에게 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 높이를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원하면 그 짓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자신이 몇 주 동안 계획해서 만든 밀월여행이었는데, ‘나가 싫어해서 분위기 다 망쳤잖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놀기로 했던 인형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던 그는 아까보다 더 지친 것 같았다. 물을 마시고, 땀을 닦으며 침대에 앉는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문을 잠그고 어딘가 나간다. 그가 없는 방안은 평안 그 자체다. 머리카락이 얼얼해서 더듬어 쓸어내려보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쓸려 내려온다. 방안의 고

요함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끔찍함과 자신은 상관없다는 고요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순간이 좋다. 나 혼자 설 수 있는 이 순간. 그 사람이 없는 이 공기. 이제는 껌껌해져버린 스위트룸에서 불도 켜지 않고, 바짝 마른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나를 이 방까지 안내해준 호텔직원이 미웠고, 옆방에서 들리는 발자국소리의 주인들이 싫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하기가 가족들도 나 몰라라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늘어져있는 커튼과 침대, 냉장고, 의자, 책상, 텔레비전, 또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모두 미웠다. 지금 그 사람에게 물어뜯기고 있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잘들 돌아가는 세상이 모두 싫다.

잠시 후 고요함을 깨고, 문 앞에 발소리가 멈춰 섰다. ☹

(다음 호에 계속)

#### ■ 水의 한마디

몇 주 동안 그 호텔방에 갇혀 지낸 기분이다. 쓰면서, 고치면서,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몰랐던 일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다. 그래서 이번 글은 엄청 늦게 마무리했다. 쓰는 내내 부족한 내 글발로는 그 당시를 잘 표현하지 못해 답답하기도 했고, 이게 과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의문스럽기도 했다. 근데 뭐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춤이나 음악, 그림으로 어찌해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 재주도 없다. 그냥 이렇게 노트북 자판을 두드려다 답답하면 덮었다 다시 펴서 두드린다.

그 사람과 사는 동안은 그 사람이 잠시 잠깐 없어지지만 해도 행복했는데.....요즘은 내 배가 불렀나보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불행할 때가 있다. 그 사람을 안 봐도 되는 지금도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몸과 마음, 기억의 아픔이 여전히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그때로 돌아간 듯 착각하곤 하지만 그 착각을 깨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쓰는 이유는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내 일상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꿈에라도 그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글을 쓰면서 꿈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은 늘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있는 힘껏 도망가는데도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 땀을 흘리다 깨곤 했다. 그 날도 꿈속에서 나는 도망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꿈속의 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가 무서워, 그래 한번 뒤돌아보자, 쫓아버려자.' 그 날도 겁에 질려있던 꿈속의 나는 정신없이 도망가다 갑자기,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몸을 완전히 틀었을 때,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뒤로 꿈속에서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야 할 일은 없어졌다.)

그래 그 일은 지나갔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시절로, 그 호텔방으로, 어릴 적 살던 집구석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말아야지.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햇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시편 90:15  
앞으로 내 인생은 기뻐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 말하기를 가해자를 그날하다

◎ 진

“그건 내가 알 것 없고, .....”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바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세히 생각나질 않는다.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황당하기 짝이 없고,  
화가 치밀어오를 뿐.  
더럽고 추한 일을 겪었다는 예사롭지 않은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도 왜 궁금해 하질 않지?  
게다가 자기 알 바 아니라고?

**산** 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나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센터 현판 디자인에 관해 논의할 때 내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캄보디아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이 내게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이려 외출했다가 여대생 직원으로부터 그 인간의 구더기 같은 짓거리에 대해 듣게 된 것이 내 무효한 반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전에는 그 사람의 온갖 추악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마지노선은 지키고자 노력했다. 일말의 측은지심이랄까. 강산이 여섯 번 바뀌는 나이를 처먹고도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의 그릇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 우리 사회가 안 쓰럽게 느껴졌다. 만약 내게 무슨 짓이라도 실제로 저질렀다면 물론 180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면서도 나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을 다잡기에만 바빴던 건 아닌지 나도 내심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참이었다.

**고** 같다고 있었던 내 인내심이 더 이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배짱이 생겼다. 순간적으로 욕했던 것을 사과하기는커녕, 나와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본인이든 나든 누구 하나는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을 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마주하니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래. 그렇게 참고 견뎌어도 그 인내심의 대가가 결국 이런 파국을 맞는 것이라면 나도 이제 애써 웃는 모습만 보여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내 마음가짐에 불을 댕긴 건 차원을 달리한 그 사람의 쥐새끼 같은 수작이었다.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아침 일찍 출근한 캄보디아인 직원들이 딱히 할 일도 없이 1층 내부를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이, 아침식사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주방 한 쪽으로 데려가더니 갑작스러운 사과 인사를 건넸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다며, 오늘 밤 한국에서 청소년봉사단도 오는데 달랑 둘 뿐인 한국인들이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 꼴을 보여주면 어쩌겠냐며 억지로 내 오른손을 쥐고 악수를 해댔다. 어제는 마치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다가 하룻밤 새에 꼬리 치며 살살대는 강아지로 돌변한 그 사람을 보니 기가 막혔다. 어젯밤 그만두라는 은근한 압력이 섞인 말을 하며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다가 마음대로 하시라며 내가 오히려 세계 나간 것이 의외였는지 갑자기 급실대는 모양새가 정말 가관이었다. 내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유만으로 의자를 던지려고까지 하며 화를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재차 회피한 채 앵무새처럼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되낸다.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개념 따윈 없었다. 알디얌은 그 사람의 뉘뉘이를 다시 한 번 느끼며 나는 대답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내일 올 아이들을 위해 일단은 물어두겠다고, 여대생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접어두었다. 설불리 건드릴 사안도 아니었을 뿐더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당장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16명의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봉사단이 프놈펜에 도착했다. 아이들 앞에서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치미는 분노와 역겨움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센터와 직원 소개와 더불어 봉사단이 10박 11일간 캄보디아에서 경험할 프로그램을 브리핑하는 그 짧은 동안,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을 만큼 온갖 뺨뺨기를 해가며 아이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느꼈다. ‘저 인생은 가련하리만치 거짓과 오물로 가득차 있구나.’ 그런 사소한 모습들에서 나는 다시 한 번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입구만 열어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법한 주머니를 왜 그렇게 거짓 포장으로 꾸미고 부풀리지 못해 안달인지, 게다가 순수한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보** 사단이 캄뽕참이라는 도시에서 일주일가량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도서관 개관을 코앞에 두고 미쳐놓아야 할 일들이 많았다. 캄뽕참에 가서 아이들이 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는지, 봉사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늘 찢찢매매는 캄보디아인 남녀 대학생 직원들을 두고 센터를 하루 이틀 떠나 있자니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차피 그 사람은 센터장이랍시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지시를 해대는 상황이라, 내가 센터를 책임지고 있겠다고 박박 우겨서 그 사람이 캄뽕참으로 가 아이들을 챙기기로 하고 나는 프놈펜에 남았다.

**그**가 없는 사이, 대학생 직원들로부터 또 다시 어이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사람이 내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수시로 직원들을 욕박질렀다고 했다. 미스 리는 정신이 상자에 성격파탄자니까 가까이하지 말라고, 말조차 섞지 말라고 그랬단다. 아,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눈치를 봤던 거였구나. 그제야 아귀가 들어맞는 느낌이였다. 얼굴에 만연한 웃음을 띠고 나를 대하면서 뒤에서는 내 험담을 늘어놓으며 직원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니. 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더 기합해야 하는지. 감정의 골이 견잡을 수 없이 깊어지자, 봉사활동을 마치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온 봉사단 청소년들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냉랭한 기운을 숨기기 어려웠다.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데에서 언성을 높인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아이들한테까지 몰상식과 거짓말을 일삼는 그의 언행에 번번이 내가 점화된 탓이었다.

**보**사 프로그램에 앙코르와트 관광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엔 내가 봉사단을 이끌고 씨엠립을 향했다. 어느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아이들을 그룹지어 투숙하게 하고, 여장을 풀던 첫 날 저녁, 나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몇몇 여학생들로부터 기절할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서너 명의 여학생들이 그 개자식이 내게 한 짓과 비슷한 성추행을 자신들에게 저질렀다며 분기탱천하여 거의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내 안에서 주체하지 못할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캄보디아 현지 여자들에게, 나한테 한 짓도 모자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항상 그래왔듯 늘 내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인간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다.

**씨**엠립을 다녀온 날 저녁, 그렇게 기다려왔던 동갑내기 남자 간사가 마침내 프놈펜에 도착했다. 다음 날, 센터장을 빼고 간사들과 봉사단끼리 가진 활동 평가회에서 센터장의 행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이들이 분을 못 이기며 성토한 그의 행위는 다양했다.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방이 더 넓으니 들어와 같이 자자고 했거나, 티셔츠 라인을 따라 속옷을 건드리고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일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이들은 일찌감치 그의 성추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후, 그 사람의 포악한 성질까지 미리 파악해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대처했다. 왜 그러냐고 대놓고 따지기보다는 16명 중 4명밖에 안 되는 남학생들이 나머지 12명의 여학생을 보호하느라 이동할 때마다 그 사람을 에워싸고 다니며 격리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질 부족에 인면수심인 사람이 센터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들은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보**사단이 떠나고 난 후, 남자 간사와 마주앉아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업무가 뒤죽박죽된 것은 물론이고, 신문에서나 봄직한 일을 내가 겪었다는 것에 대해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특히 낮에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썩기를 박는 듯한 내 경험담을 듣자 그는 진저리를 쳤다. 이 동료 간사도 남자 이긴 하지만, 프놈펜에 오기 전 한국에서 몇 번의 모임을 통해 그를 겪었던 터라, 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던 탓인지, 그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남자 간사는 심정적으로도 어느 동성 친구 못지않게 내게 큰 동조를 해주었다.

**그**다음날부터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남자 간사가 한국의 지인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일이 형사고소감이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겪은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문득 겁이 나면서도 한없이 고개를 치켜드는 자책감과 자괴감을 누를 수가 없었다.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을까. 일단 뭐라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적절한 시점은 개관식 즈음이었다. 한국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본부 직원들이 몇 명 방문할 테니, 그들이 머무는 동안 여기 사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그 사람과 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가 “저 여자는 젖이 너무 커서 징그럽다”거나 “살찐 여자는 젖소 같으니 살을 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포르노나 보고, 이 여자 저 여자 치근대고 다녔냐”며 쏘아붙였다. 내가 당신의 추악한 짓을 듣고 보고 경험해 알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더 계속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대항해보아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다. 캄보디아인 직원들에게 나와 어울리지 말라고 욕박질르는 것이 심해진 것은 물론, 심지어 남자 간사한테까지 날 두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니 빨리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뒤통수라고 했다. 나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는 애써 꾸며내고 있었고, 잘못된 것도 없이 나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에 나는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개관식을 마치고, 그 날 저녁 한국에서 날아온 직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사무총장을 필두로 그간의 경과보고와 센터의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내 정신은 온통 단 한 군데에만 쏠려있었다. 센터장이 저지른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계획하고 있던 나의 미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개관식이 시작되기 전인 아침에 만났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워하며 두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쏟아내던 단체 사람들이 관광 일정 등 스케줄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나를 대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그 사람의 이간질이 빛을 발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던 터였다. 그런 기류를 눈치 채고서도 일단 부딪쳐보리라는 생각에 기회를 보다가 사무총장이 내게 이리저리한 부분에 대해 큰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을 건네자 이 때다 싶어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 동안 여기서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을 겪었기에 힘들었노라고,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잠시의 머뭇거림을 거쳐 사무총장이 말했다. “그건 내가 알 것 없고, .....”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바로 그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세히 생각나질 않는다.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황당하기 짝이 없고, 화가 치밀어오를 뿐. 더럽고 추한 일을 겪었다는 예사롭지 않은 단어를 입에 올렸는데도 왜 궁금해 하질 않지? 게다가 자기 알 바 아니라고? 혹시나 하던 예감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해 강렬히 다가온 순간이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그간의 이곳 사정을 전하는 척하면서 이들에게 나를 험담했겠지. 센터 직원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꾸며대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정신이나 성격에 이상이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조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에 대해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하나 하는 답답함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내 왼쪽에 앉아 있던 남자 간사가 탁자 밑으로 내 팔을 잡으며 나를 만류했다.

이날 이 자리를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프놈펜에 도착한 날부터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참고 또 참아왔는데!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삼시간에 사그라지는 것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목도하듯 느끼며 이연실색한 채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인간이 자기변호를 눈부시게 펼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세대차이가 있다 보니 이 간사가 서운한 게 많았나보다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는 등, 나이 먹고 기운 빠진 자신이 쉬는 게 낫다는 등... 무슨 드라마 대사를 읊고 있는 것만 같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으로 느껴졌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두겠다는 말을 내뱉어버렸다. 나도 계획한 적이 없거니와, 옆에 있던 남자 간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만큼 갑작스러운 선언이었

다. 사무총장을 포함해 한국에서 온 본부 측 세 명과 센터 직원 세 명, 이렇게 여섯 명 사이에 당시 여러 말이 오갔었지만,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냥 그 한 시간 남짓 동안 내 모든 기대가 서서히 꺾여가는 상황이 마치 정점에서 0을 향해 하강곡선을 그린 그래프처럼 도식화된 이미지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고개를 젓고 있는 나.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라는 말을 녹음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되풀이하는 그 사람. 총장 직속으로 여기 프놈펜에서 센터장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를 제안이랍시고 내놓고 앉아 있는 사무총장. 돌이켜 봐도 여전히 우습지 않은가.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을 겪어 힘들다는 직원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겪었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그 배경이나 원인 따위를 캐려 하기는커녕, 그 작은 프놈펜 안에서 센터와 관계없이 같은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근무하라니 그게 무슨 뚱뚱자같은 소리인지. 내 머리가 백발로 변해있지는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이 될 정도로 힘이 쭉 빠지고 노곤함이 찾아들었다. 내 안의 무언가가 툭 끊어져버린 느낌.

그래, 센터장 너 이 새끼. 일단 네가 이겼구나. 육십 몇 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니? 사무총장, 단체장이라면서 이딴 식으로밖에 못해?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 최악이라고 생각할 법한 길로만 빠지는 거지? 그래 좋아. 미련조차 두지 않을 거야, 이 더러운 것들이. 이런 생각에 나를 맡기면서도 겉으로는 나도 웃으며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네요”라고 사무총장에게 마무리 인사를 건넨 게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빼적대면 재가 저렇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뻔했기 때문에, 나도 나름대로 수를 좀 쓴 것 같다.

자리가 파한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잠자기 왜 했다는 걱정 섞인 남자 간사의 질책에 대답이 궁했다. 그냥 도저히 더 못하겠다 싶어 나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였다. 그렇지만 후회는 없다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렸다. 이제 와서 어찌겠느냐 말이다.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내놓고 말해버렸고, 붙잡는 시늉을 하는데도 끝까지 굽히질 않았으니.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었다. 그 인간과도, 그 단체와도 더 이상 인연의 끈을 잇고 싶지 않았다.

사퇴의사를 밝히고 수리한 과정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앉은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우습게도 내가 언제 그만두고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 밖에 낸 적 없이 흐지부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만둔다고 밀박을 던져 놓고 정신을 차려 보니 당장 며칠 후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막내 여동생이 겨울방학을 맞아 언니도 볼 겸 캄보디아 관광을 하러 올 예정이었다. 이제 와서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그만됐다고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이며, 막상 동생이 오면 어디서 목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참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너무 걱정스러웠다. 다짜고짜 일을 그만둘 게 아니라 진작 다른 곳을 알아봐 둘 걸 하는 후회도 앞섰다. 그만두기로 한 내 결단과 나를 그렇게 내몰았던 내 인내심의 발휘에 대한 후회는 일말도 없었지만,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좋을지 몰라 또 다시 잠 못 드는 나날이 이어졌다.

**예** 정대로 동생과 2주 정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센터로 돌아와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섰다. 부푼 가슴을 안고 떠난 길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갈 때 가더라도 프놈펜이든 어디든 당분간 적을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놓고 돌아가야지. 프놈펜 내의 국제기구나 단체를 찾아 인터뷰 기회를 자청하고, 몇몇 캄보디아 친구들을 통해 합류할 만한 프로젝트들을 알아봤다. 다행스럽게도 몇 군데 인터뷰 약속을 잡아 놓고 무너진 틈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뿌듯해하던 어느 날, 이런 내 속사정을 모르던 남자 간사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며 그 전에 내가 먼저 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내 의견을 물어왔다.


**여** 행을 다녀온 후, 나는 그 때도 여전히 센터에 머무르고 있었다. 1월에도 열 몇 명의 청소년봉사단이 두 팀이나 번갈아 왔기 때문에 센터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나 역시 며칠이라도 더 머물며 쓸 만한 동아줄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던 때였다. 눈만 마주치면 내 험담을 일삼으며 거짓말로 본부에서 공문이 왔으니 빨리 쫓아내라고 남자 간사를 부아대던 그 사람의 바닥 같은 인격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센터를 나가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려는 나를 굳이 붙잡아 왜 헛돈을 쓰냐며 센터에 계속 머무르도록 북돋워주고 센터장으로부터 보호해주려고 노력했던 남자 간사의 따뜻함이 되레 너무 고맙고 미안했기에 나는 내 개인적인 계획보다는 남자 간사의 스케줄을 우선 고려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센** 터장을 하루 빨리 강제 소환해 귀국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목적이었다. 그러자면 일단 본부를 납득시켜야 했고, 사건 피해 당사자인 내가 적극 나서서 피해상황을 낱알이 알리면 남자 간사가 지원사격을 하는 것으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렸다. '남자 간사보다 며칠 먼저 한국에 들어가 사무총장과 대면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 놓았다.

**이** 런 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는 내가 센터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큰 역할을 했다. 12월 말에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첫 봉사단의 개별 평가보고서가 본부에 제출되고 나

서, 센터장의 성추행 문제가 기관 차원에서 불거지게 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자 간사도 사무총장 등 본부 측의 연락을 여러 번 받았다고 했다. 전부 사실이라고, 이 간사는 더한 일도 겪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남자 간사가 나를 대신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바를 밝혔지만, 본부의 반응은 "정말이냐"고 재차 물으면서도 별 일 아니라는 듯 시큰둥했다고 한다. 특히 사무총장은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몽땅 빼고,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것만 얘기하라"고 다그쳤다고 했다. 당연히 동성인 남자 간사는 나나 봉사단 여학생들이 당한 일들을 겪었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도서관 개관 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1층 화장실에서 센터장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샤워하는 것을 직접 봤다든가 하는 몇 안 되는 이야기로 신빙성을 더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런 남자 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내린 결론은 단순명료했다고 한다. "40년 동안 군생활을 한 남다른 분이야,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점을 크게 부각시켜 문제시"하거나, "원래 나이든 남자들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괜히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라나.

**이** 령게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영킨 실타래를 한 움큼 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남자 간사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세운 계획이건만,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니 비어 있는 날짜가 여행사에 전화한 바로 그 날 밖에 없다고 했다. 오늘 가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겨야 하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다. 남자 간사와 내가 함께 사무총장 면전에서 센터장의 귀환을 강력 요구할 작정이었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2주 정도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그 사이에 잡힌 인터뷰나 미팅 일정은 미루거나 어쩔 도리 없이 핑크를 내게 되었다. 저런 별레만도 못한 인간이 저 자리에 그냥 있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아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곧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나는 급하게 짐을 싸다. 업무 수행에 요긴할 것 같아 바리바리 싸간 전공 책들과 대부분의 옷들은 남겨 두었다. 곧 돌아올 거니까.

**갑** 작스레 오늘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변에 알리니, 낮에 본 얼굴들이지만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만나자며 저녁 때 센터장을 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들 대충이라도 센터장의 행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한인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센터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어느 한국분이 일부러 귀뜸해주었을 만큼, 그의 더럽고 천한 행위가 주변에 알려져 있었다. 1, 2주 후에 다시 보자고 가볍게 인사하고 나온 그 날 밤 송별회가 그토록 긴 이별이 될 줄이야. 그 날 이후 정확히 1년 8개월 동안 나는 캄보디아에 돌아가지 못했다. 

(다음 호에 계속)

# Diary

## 열림터 다이어리

찬바람이 부는 가 싶더니,  
 벌써 첫눈 소식이 들립니다.  
 늘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보니  
 풍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지나치는데,  
 올 가을은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한 마라톤 덕분인데요,  
 매번 식구들과 밤풍경색의 변화를 느끼면서  
 달리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월드컵 공원, 평일에는 한강이나  
 근처 중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얼마 전부터 마라톤 시즌2도 시작하였으니,  
 함께 하실 분들은 운동화만 신고 오세요!  
 그간 열림터에는 3명의 식구가 새롭게 이사를 왔고  
 1명의 식구가 이사를 가서, 6명의 식구들이  
 일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식구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습니다.



+ 열림터 일상은 블로그에서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www.yeolim.or.kr](http://www.yeolim.or.kr)



### 9월

2일부터 마라톤 훈련 시작 (주2회)  
 13-15일 추석 나기  
 27일 여악여락 콘서트 참가  
 \* 혜옥, 사자 3년 근속 ^^



열림터 생활 - 열림터 다이어리

### 10월

\* 마라톤 훈련 주욱  
 12일 <핑크리본마라톤대회> 참가  
 16일 국악공연 관람  
 18일 월드컵공원 소풍, 노래방



### 11월

5일 <마라톤-시즌2> 시작  
 13일 이리 수능 응시  
 31일 별이, 순심이 나무리코더 시작



## 그녀들과 함께 달린 10km 완주의 기록

◎ 김프로 (엘림터 큰언니 ^^)



## 2008년 9월 그녀들의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그녀들은 월.마.클(월드컵마라톤클럽) 동호회의 도움을 받아 마라톤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라톤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러닝신발과 옷을 장만하였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을 정기모임일로 하고, 다들 열심히 하기로 각오를 단단히 했다. 9월의 날씨란 한 낮엔 무더운 여름처럼 땀이 나게 했지만, 약간 해가 지면 선선한 바람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다들 처음에는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2km를 뛰었다. 우리를 전격지도해 주시는 “노량진 선생님”께서 첫날 우리들의 달리를 지켜보시고, 몰래 한숨을 쉬시며 손수 연습 일정표와 팀을 짜 주셨다. 팀 이름은 토끼팀과 거북팀이었다.

거북팀에 편성된 김프로, 보리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왜 팀 이름이 느린 동물이냐고 불만을 호소했지만, 거북(엘림터 활동가) 쌤은 거북이는 비록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천천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면 더 유리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토끼팀이 된 세아 쌤, 어진 쌤, 이리는 정말 가뿐하게 2km를 뛰었다. 세아 쌤은 일주일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가볍게 스타트를 끊으셨다. 어진 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셔서 다들 신기해했다. 그렇게 첫날의 달리를 뿌듯하게 해낸 우리들!! 다들 마음이 약간 씩 들뜬 듯하다.

다음날, 이리는 무릎이 아파서 처음엔 잘 걷지 못했다. 그렇게 이리는 연습에 잘 참여할 수 없게 되어서 무척 안타까웠다.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 마디씩 건네며 이리를 위로했을 때, 이리는 ‘뭘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고, 좋은 느낌이었다며 아쉬

워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리 뭉까지 열심히 연습에 임하였다. 노량진 선생님은 달릴 때 '마치 계란 위를 걷거나 얼음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고 뛰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일까? 다들 아직은 아마 추어라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매주 연습에 나갔고, 정기모임 날은 아니었지만 화요일에도 따로 한강에 나가 연습을 하였다.

어느 날은 하늘공원으로 연습을 하러갔는데, 보리가 월.마.클에 있는 한 분께 10바퀴를 돌면 '고드름'을 사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셨다. 실제로 보리는 고드름에 힘입어 10바퀴를 돌... 려고 했다. 결국 8바퀴를 돌았는데, 어쨌든 보리는 정말 대단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연습이 끝나고 고드름을 먹게 되었다. 열심히 달린 후에 먹는 고드름이란, 달고도 시원하다! 그렇게 일상과 마라톤을 오가면서 다들 바쁜 생활을 했다.


그러다보니 열린터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다. 핑체와 진이는 늦게나마 마라톤을 시작하고 싶다면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다. 진이는 생각보다 너무 잘 뛰어서 월.마.클 분들이 유망주라며 선수를 해도 되겠다는 칭찬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5km를 뛸 수 있게 되었고, 한 주 뒤에는 7km를 뛰었다.

그녀들을 보니, 처음에는 자세도 불균형하고 몸도 무거웠지만, 이제는 아마추어를 약간은 벗은 듯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녀들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대회까지 일주일만 남았을 때, 우리는 5분 뛰고 1분 걷기를 30분 동안 병행하며, 대회 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10월 12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핑크리본마라톤대회> 날이 다가왔다. 대회장은 몇 백 여명의 사람들로 인해 정신이 없었다. 카메라 담당 순심이는 한명씩 한명씩 인터뷰하고 촬영하면서 즐거워했다. 순심이의 카메라를 향해 다들 10km를 꼭 완주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출발 전 마지막으로 긴장된 웃음을 띤 채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 순간, 어쩌면 다들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을 것이다.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생각들... 달리기를 통해 얻고 싶은 것들, 끈기와 인내, 자신감, 탄탄한 몸매,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등을 원했기에, 그녀들은 열심히 노력했다. 나이는 다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웃음을 짓고, 같이 긴장하며, 비장한 각오 속에 출발선에 섰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리고 있고, 우리들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달리고 있었다. 마라톤을 가르쳐주신 월.마.클 동호회 분들이 옆에서 같이 뛰어주셔서 긴장감이 약간 줄어서인지, 연습할 때처럼 숨이 벅차도록 힘들지는 않았다. 앞서가는 보리, 그 뒤로 진이, 어진 쌤, 세아 쌤, 김프로, 핑체, 거북 쌤까지... 다들 페이스조절을 잘하면서 10km 완주 포말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다.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완주였다!! 중간에 우리가 3km지점 쯤 지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이미 반환점을 돌아서 도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기죽지 않고 깨끗하게 달려서 10km를 완주했다. 월.마.클 동호회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뛰어줄 줄은 몰랐다면 대단하다고 하셨다. 무릎부상이었던 이리도 5km를 완주하였다. 다들 달리고난 후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정말 아름다웠다. 응원을 나와주신 사자 쌤, 혜옥 쌤이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셨다.

그녀들은 도전했고, 그것을 이뤘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들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

P.S. 월.마.클 동호회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 욕망의 모방

## 질투는 나의 힘

연재 2/3

◎ 상담소 후원회원 기온

survivor's voices

첫 번째 글 <알고 싶다면 하라: 체현>에서는 무엇이든 알고 싶다면 직접 해보는 길 밖에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움이 체화되고 나의 변형의 질로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저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sup>1)</sup>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그 경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이론을 함께 배운다면, 우리 몸과 머리는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의 양분을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모방적’이라고 인류학자, 사회학자, 정신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 ‘독창성’, ‘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의 모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영’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허영은 ‘모방(물뿔)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숨긴 채 자신의 사이비 독창성을 고집하는 태도’라고 르네 지라르<sup>2)</sup>는 정의합니다. 허영을 직시하는 방법은 먼저 나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타인의 영향을 직시하는 것과, 모방의 사실을 잊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독창성의 환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sup>3)</sup>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모방적인 욕망’의 그물망에서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특히 어떤 몸을 욕망하고 모방하여 왔는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내가 욕망하는 몸은 어디에서 왔지?

일전에 함께 사는 친구가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더니, 턱을 깎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만족해하더군요. 맥주병으로 다리를 문지르던 그 친구는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다음 작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집밖으로 나가면, 온 길거리의 사람들이 다 나의 종아리를 본다고 느꼈던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수술을 해야겠다고 조금씩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TV에서도 종아리 근육 퇴축술이 얼마나 간단한 시술인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동안에 수술하는 모습도 보여주더군요. 이제 저에게는 돈을 모아 성형수술 침대에 누는 것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의 가장 치명적

1) 나눔터 59호, 몸이야기 「지금 여기에서, 내 몸으로 세상을 바꾸다」에서 키라는 “낯선 영역으로 내 몸을 던져보는 것이 어떤지?”라며 운동화 끈을 묶고 문밖으로 나가자고 추동하고 있지요.

2) 르네 지라르는 프랑스의 문학비평가로서 「폭력과 성스러운», 「희생양»,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등의 저자입니다.

3) 한겨레, <기획-책과 생각>, 김영민의 영화와 인물, 「홍상수, 극장전 : 허영의 주체」, 2008년 8월 2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4) 이후로 수많은 성형수술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형 계모임을 하고, 친구들끼리 가면 단체 할인을 받고, 엄마 친구의 소개로 연결되는 등 성형은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방식은 성형에 대한 낯설음이나 두려움, 무작용의 기회비용마저도 감수하게 하고, 성형을 ‘할 만한 것’으로, ‘남들도 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인 부작용이 '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얇은 종아리를 갖겠다는 욕망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sup>5)</sup> 별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종아리 근육을 '퇴축'할 뻔 한 저는 그 사건 이후 '대체 내가 욕망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뭘 따라하고 있는가?' 물어야 했습니다. 나의 욕망은 아주 특정한 '여성적인 아름다움'에 맞추어지고 끊임 없는 따라하기(모방)의 행위가 그를 뒤쫓았습니다. 신발이며 옷이며 화장이며 말투, 몸가짐 하나하나 까지 TV속의 연예인이나 가까운 친구들의 것을 따라했습니다.

또 따라오는 질문은 '어디까지가 나의 시선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의 시선인가'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종아리가 불만이라면, 그것은 나의 시선인가? 사회의 시선인가? '사회' 중에서 누구의 시선인가? 같은 과 친구 xx의 시선? 아니면 xx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나의 시선? 혹시 살 좀 빼라고 하는 친척언니의 시선?

나만의 미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던 나는 도대체 나의 시선과 타자들의 시선을 구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내면화'라는 개념이 들리더군요. 나도 미디어의 이미지와 가부장제적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시선과 내 안에 들어온 외부의 시선은 칼로 무 자르듯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구분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다만 무비판적으로 가부장제의 시선을 접하는 동안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지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구성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시선은 아프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런 몸이 되면 나도 연애를 할 수 있고, 짧은 치마나 스키니 진을 입을 수 있고, 섹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나의 수많은 가능성을 '날씬해진 언젠가'로 모두 미루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의 미(美)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좌절되자 그것은 불행으로 이어졌고, 다이어트와 성형이라는 가법지 않는 선택으로 나를 몰아갔습니다.

그뿐인가요, 자기 몸에 대해 수용하고 긍정하지 못할수록 타자의 몸은 나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질투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 '스스로' 열등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마른 몸, 자연스러운 몸, 몸에 대한 검열과 제약이 없어 보이는 몸에서 풍기는 그 자연스러움과 활발함, 가벼움이 저의 열등감을 불러내고, 그 열등감은 어느 덧 나의 자아의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sup>5)</sup>

그 시선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전지현이 될 리 만무하니, 여성다운 외모꾸미기라는 소비 시장 안에서 그 욕망은 끝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 욕망은 탐하면 탐할수록 커지는 것이고 시장은 우리의 행복을 욕망 안에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요.

5) 친구 박지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음의 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나를 들여다볼 때의 이 당혹감과 괴리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유럽의 한 예술가가 시네 변화가에 투명 화장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막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원웨이미러 방식이었는데 이용자들이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는군요. 일단 들어오기는 하는데 제대로 '볼일'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나는 잘 보이는데 상대방은 나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공상 소설 속에서 초보 투명인간이 자기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서 실수를 연발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걸 알아차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 안 해' 류의 무신경이나 뻔뻔함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한 자기인식은, 투명화장실에 앉아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행인을 바라볼 때처럼 당혹감과 괴리감을 동반합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자기대면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정혜신의 그림에세이, 투명화장실, <http://blog.naver.com/mindprism>



그러나 ‘당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 는 여성주의의 메시지는 그 안에서 숨 쉴 구멍을 주었습니다. 조금씩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머릿속에서 주문을 외었습니다. ‘난 나다. 너네들이 뭐라고 보던 난 나야’ 그러나 여전히 내가 욕망하고 따라할 구체적인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았고, 그 메시지도 쉽게 체화되지 않았습니다.

### 욕망하는 몸이 바뀌었습니다 ; 질투는 나의 힘

그러나 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심미안審美眼)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만남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다른 몸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xxx였습니다. xxx를 비롯한 다른 몸 친구들은 ‘여자다워야 한다’, ‘예쁘게 보여야 한다’ 는 이성애적 규범에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웠고, 활개를 치고 다니며, 저항하고 대항해야 할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많은 움직임들에 도전하고 몸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우연히 한 행사에서 마주했을 때 ‘어쩔, 참 안 예쁘게 생겼다’ 고 생각했던 그녀가, 보면 볼수록 멋있고 잘 생겼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하고 싶었고,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다른 몸 그룹에 나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만난 다른 몸 언니들은 나의 심미안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동하는 몸, 근육의 몸, 몸적 자신감으로 어디서나 한 자리를 든든히 차지하고 있는 몸, 자기 공간을 압도하고 굳건히 서 있는 몸, 길의 중앙으로 걸어가는 몸,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몸, 풍만한 몸의 아름다움을 가진 몸, 자기 리듬을 타는 몸, 입고 싶은 데로 입는 몸, 방어할 수 있는 몸, 위축되고 수축되지 않는 몸, 노래하고 춤추는 몸, 격파하는 몸, 장미란 선수같이 세상을 들어 올릴 몸.

그녀들은 운동장에서, 산에서, 달리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몸으로 밧그레진 얼굴로 거칠 것 없이 소리치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욕망하는 몸이든, 욕망하지 않는 몸이든 나의 시선은 언제나 타자를 향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공허하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다른 몸 그녀들을 만나서 나의 심미안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시선 역시 타자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몸 프로젝트는 가부장제의 시선, ‘당신의 시선을 넘어’ 서고자 했지만, 끊임없이 당신을 향하는 ‘나의 시선’ 을 나는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그녀가 바뀌었지만, 늘 나는 따라하고만 있나? 쓸쓸했던 것이죠. 밖을 향하는 시선을 멈추어 보았습니다. 따뜻하게 거울을 볼 수 없었던 나의 시선에 대해 시인은 다음과 같이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었을까요? 타자를 향한 시선은 어느덧 나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울 속의 나를 슬며시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한번씩 씩 웃게 되었지요. 나를 보는 눈과 타자를 보는 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긍정할수록 타자의 몸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수용할수록 타자 역시 더 넓게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덧씌워졌던 수많은 욕망들의 허상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는 몸, 아픈 몸, 더 많은 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그저 몸 일뿐.

### 행복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행복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나는 그/녀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았고, 느꼈고, 그 행복이라는 권력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커진 행복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산다는 것, 생생하게 산다는 것, 지금 여기를 몸으로 산다는 것의 희열을 맛본 것입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모방하는가 직시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 특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리 행복한가,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그 사랑을 구걸하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스스로 주지 않는 것을 어느 누가 주겠습니까? 깊이 그리고 충분히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점차 되문게 되었지요.




사회운동은 타자와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행복'에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직관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빛을 받을수록 그 빛은 사람들에게 변화하고 싶은 자극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질투와 시기로 눈멀지 않는다면요. 아니,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 질투와 시기를 느낀다면, 당신도 그것을 원한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러운가? 그것은 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더군요.

이제 나의 일상에서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나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의 아픔을 들어 줄 수 있려면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야 했습니다. 친구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싶은 마음은 내 안의 에너지와 행복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울고 말지만, 같이 넘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견고,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라도 노을을 보며 행복해 합니다. 내 몸도, 내 아픔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더 자주 깊은 행복을 느낍니다.

### 나는 나 스스로에게 몸과 마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언제 행복한가, 그 행복을 더욱 깊이 느끼고 지키십시오. 욕망하고 모방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욕망은 끝이 없으니 내가 그 욕망을 직시하고 조절할 때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십시오. 지금 나의 고통의 이면(裏面)인 행복을 질문해봅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국면은 오고 말 것입니다.'<sup>6)</sup>

오매님과 박지나님의 빨간펜 감사합니다. 

6) 나눔터 58호, 몸 이야기, <고풍이 아니라 행복을 질문하기>, 키라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영애 前소장 / 이미경 現소장

“상담소에서 활동한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일시 : 2008년 11월 10일 오후6시 / 장소 : 최영애 선생님 자택 다락방  
인터뷰 및 정리 : 이윤상(부소장)

인터  
entertainm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뵈니, 상담소에서 셋이서 함께 일했던 1990년대 후반이 생각나요. 제가 부소장으로 활동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10년 전을 얼마나 많이 회상했는지 모르답니다. 저는 그 때 참 신나고 즐거웠어요. 부소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버거움은 확실히 10여 년 전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긴 하더라고요. 상담소의 문을 열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상담소를 이끌었던 최영애 선생님, 그리고 2002년부터 소장역할의 긴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 이미경 선생님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된 건, 상담소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내년은 상담소가 새 대표도 뽑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담소 창립멤버이자 그동안 상담소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두 소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윤상** 우선, 상담소 활동을 돌아보면서 “참 잘했구나”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최영애** 가장 중요한 건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분석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진단하여 세상에 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상담소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끊임없이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는 상담통계를 분기별로 내고 언론보도를 했어요. 은폐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그 의미를 생산한 것이 미치는 영향을 실로 거대했지요. 그리고 노동 이슈 중심이던 여성운동계에 성·성폭력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던졌고, 또 이 이슈가 일반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어서 반성폭력운동이 대중운동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 점도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초기의 반응과 달리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해나가면서 여성운동계에서도 우리 이슈가 꼭 필요한 이슈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미경**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여 소위 여성운동의 세분화, 전문화를 시도한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성폭력, 데이트성폭력 등 주제로 내부세미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료집으로 바로바로 엮어내어 교육하고 홍보한 것도 지금까지 우리 상담소가 주요하게 해 온 일이지요. 그러고보면 70년대부터 반(反)성폭력운동을 해온 외국 여성운동단체들의 경험과 자료들에 우리상담소가 참 많은 빛을 졌네요.

**최영애** 맞아요. 91년도에 상담소를 열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서 개최된 전 세계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를 위한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때 거기 참석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많은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때 배웠던 것들이 그 이후 상담소의 10년 활동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상담소가 94년도에 24시간 운영하는 위기센터를 개소한 것도 그 때 얻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담소가 정말 많은 자원활동가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단체가 남성자원활동가를 양성한 건 아마 상담소가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소의 지지기반을 많이 확충할 수 있었지요. 돌아보면 우리사회에 큰 의미를 남긴 활동이 참 많아요.

**이윤상** 최영애 선생님이 초기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경 소장님은 2002년도부터 소장역할을 맡게 되셨잖아요. 상담소의 2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미경** 2000년대 들어 우리 상담소는 초기 10년의 활동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법/정책 활동과 역량강화(empowerment) 프로그램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폭력관련 정부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폭력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담아 비판과 제언활동을 하면서, NGO가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도 생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2차 피해 문제제기, (성폭력 조장하는)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공소시효 연장 및 배제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아이디어도 사실 그동안의 상담소 역사에서 나온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존자말하기대회, 작은말하기, 밤길 되찾기 시위(달빛시위), 춤테라피, 욕망찾기 프로그램, 여성주의 자기방어 등 여성을 피해자로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인 동시에, 힘을 갖고 있는 생존자(survivor)로 그려낸 것이죠.

**이윤상** 최영애 선생님은 상담소에서 오래 일하신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셨는데 어떤 점이 새로웠는지, 또 다른 조직과 비교되는 상담소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최영애** 상담소라는 엔지오 조직에서의 경험이 처음 인권을 만드는 준비단장으로 일한데 굉장한 도움을 줬어요. 제가 살아있는 조직, 현



장을 갖는 조직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위 조직을 편재했고, 발로 뛰는 인권위, 감수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일하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이 모든 것은 상담소 활동에서 얻은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여러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는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세대 간 문제일수도 있고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활동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사적영역의 중요성, '나' 자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100% 공감하지 않으면 몸을 던져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저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경향 자체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더욱 염려되더라고요.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는 서로 다르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런 차이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소통이 정말 중요하죠. 소통의 장을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 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과연 서로 진심으로 소통을 원하는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미경** 이걸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러 세대가 똑같은 숫자로 일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그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가치관과 견해가 다를 때 어떻게 여성주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나이와 상관없이, 또 상근활동가든, 회원이든, 자원활동가든 상관없이 서로 소외감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겠지요. 예전에 호주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80세가 다 된 분이 회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가인 당신의 손녀랑 함께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과연 저도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죠. 또한 지금의 우리 상담소가 그렇게 품이 넓은 그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요.

**최영애** 상담소가 처음 시작할 때 여성주의 조직을 실현해보는 것도 큰 목적이었어요. 민주적인 조직, 평등한 조직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죠. 저는 운동의 방식이나 지향에 따라서 조직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규모 문화운동을 하는 조직과, 직급과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조직은 서로 다른 형태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형식적 평등에 얽매어 형식적이 평등이 평등의 전체인 양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책임과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는 방식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윤상** 상담소는 이제 20주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기의 상담소 기획이 잘 펼쳐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영애** 상담소는 개소 때부터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을 주요 취지로 가지고 있었죠. 그 정신은 잘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인들의 평가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상담소가 다라고 생각하는 틀 안에 갇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 전체, 아시아 등을 보면서 연대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자원을 엮어가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그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이주여성, 북한여성 등 우리가 새롭게 발굴하고 차고 나가야 하는 이슈가 많은데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너무 한정적으로 보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20주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라면 그런 정도의 역량과 안목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쌓아온 콘텐츠가 정말 많죠. 예를 들면 정말 극찬을 받고 있는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같은 모델도 적극적으로 나누고 확장해야죠.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활동만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는 것과 큰 판에서 그려본 후에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미경** 초기에는 먼저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후 연구소, 쉼터, 교육장 등의 자매기관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반성폭력운동센터의 모습을 그렸었지요. 실제로 그동안 열림터, 부설연구소, 성평등교육센터, 21세기미디어센터, 하담 등을 차례로 열어서 활동하다가, 여러 논의들을 거치면서, 외양의 팽창보다는 내실을 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의 상담소와 열림터만 남기는 선택을 했지요. 이러한 선택은 반성폭력운동이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운동의 자율성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몸체를 가볍게 하면서 깊이 고민하며 치열하게 운동해 가는 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그 과정은 의미가 있었지만 활용의 측면에서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노력이 부족했지요. 자칫 너희들만의 운동이나는 비판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이윤상** 곧 상담소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또 현재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교체될 예정이에요. 새롭게 구성될 드림팀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미경** 상담소 초기에 비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들로만은 전혀 신성하지 않지요. 여성운동의 상상력을 키우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구체적인 실천력이 함께 따라주어야 하는 시대이죠. 그런 점에서 차기 활동가들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찌 보면 20주년이라는 역사가 부담일 수도 있고요. 과거와 새로운 과제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될 것이지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근활동가 중심의 조직운영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이제는 회원의 참여와 지지가 더욱 필요한 시대잖아요. 특히 우리사회의 맥박이라 할 수 있는 NGO로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독립이 큰 과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 우리 활동가들에





게 새로운 도전의식과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또 그동안 함께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참여가 계속될 거고요. 무엇보다 가슴 뛰는 열정을 가진 상담소의 새 드림팀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으로 반성폭력운동의 지형을 새롭게 펼쳐가리라고 기대합니다.

**최영애** 이미경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드림팀이 새로 꾸려져서 가는 상황은 굉장한 변화를 의미하죠. 많은 것이 경제효율성으로 판단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인원 충원의 문제, 지지그룹 등에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

되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저는 상담소는 20년 동안 쌓은 전문성과 대중의 신뢰도가 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차기소장이 자기 자신의 비전,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판단해서 주력 사업을 잘 만들고 밀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상담소도 더욱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소장은 상근활동가와 함께 가지만 동시에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인권위에서 일하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귀찮다 생각지 말고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잘 보면서 넓은 안목으로 새로운 과제를 잘 찾아나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인터뷰를 마치고 전 상근활동가 정유석 님, 정진옥 님이 합세하여 10여 년 전의 상담소 이야기로 한참 동안이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나왔던 말 중에 모두가 입을 모아 되뇌었던 말이 정말 가슴에 진하게 남네요. “상담소에서 일했던 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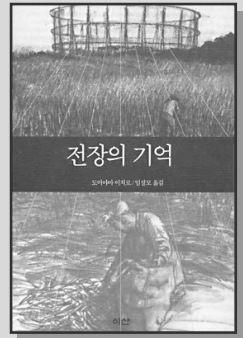


'소모임 생각'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여성주의 소모임들이 돌아가며 그간의 만남을 통해 길어낸 생각들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2008년 나눔터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소모임 '토닥'에서 고정칼럼을 연재합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아래에서 함께해요!

## 도미야마 이치로의 『전장의 기억』

◎ 토닥이 토리

### 일상과 몸에 스며든 국가. 그리고 전쟁.



이번 가을 토닥 모임에서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도미야마 이치로의 '전장의 기억 (2002, 이산)'은 전쟁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폭력들을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자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 맺고 있는 모든 담론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 각자가 하는 실천이며,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저자의 말대로 내가 전쟁과 폭력에 가깝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군사적 폭력에 대항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자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쟁을 볼 때, 그들의 의식이나 정체성보다 신체적 실천에 주목하자고 말합니다. 이는 전쟁에 동의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그 판단을 실천하는 개인의 행위성을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국민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행위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무의식적이고 일상화된 실천 속에서 상상되고 검증됩니다. 참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상과 검증 과정의 가장 선명한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은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일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쟁과 국가는 어떻게 상상되고 검증될까요.

존 쿤티의 소설 '철의 시대'에 등장하는 흑인 소년 베키는 학교에 가는 대신 백인집단에 대항하는 투쟁에 참여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베키의 어머니가 일하는 집의 주인인 커런 부인은 베키의 선택을 만류합니다. 커런 부인은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정책이 지배 남성들이 만든 잘못된 역사일 뿐인데, 베키가 그 속에 휩싸여 유년시절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인이자 지식인인 커런 부인의 이 말은 흑인 소년 베키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합니다. 1980년대 중반의 남아프리카는 인종분리주의정책에 근거한 흑인집단거주지역을 상대로 국가(백인 지도층)의 폭력이 난무하던 때입니다. 베키의 행동에 충고하는 커런 부인은 베키와 같은 집, 같은 지역,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베키를 비롯한 흑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폭력을 해석

하고 실천합니다.<sup>1)</sup>

커런 부인은 결코 인종분리주의의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미야마 이치로의 말대로 '전장에 누워있는 시체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그 전쟁의 공모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커런 부인은 국가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폭력에 대항할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그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국가를 뛰어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다른 국가의 아이들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고등교육을 받도록 돕자는 고민만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전 지구적인 맥락에 우리 개개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베키와 총을 든 아이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그 국가의 경계 안에 살지만 '배제 됨'으로써 포함되며 살아있되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sup>2)</sup> 커런 부인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고 죽은 후에도 충분히 애도 받지 못하는 베키와는 다른 사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의미가 '상상'적이라는 것을 같은 국가에 살고 있는 베키와 커런 부인에게 그 국가를 증명해내는 신체적 실천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전쟁을 둘러싼 저마다의 행위와 기억들은 후속처럼 유통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

1) 이 소설은 남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낸 백인집단을 비판하기보다,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커런이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이 살아온 공간들과 관계들을 '고통과 수치심'으로 새롭게 해석해나가는 과정이 중심을 이룹니다. 픽션 혹은 진실을 접할 때 약자와 피해자 입장에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소설입니다.

2)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를 참고했습니다.



# 뚝다! 상담소

## 반차별 공동행동

작년 차별금지법 법무부안에 문제제기하며 모였던 반차별공동행동이 '새로운 연대를 고민하며 모인 반차별 공동행동에서는 <상상더하기>라는 제목 아래 이야기마당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운동 이슈와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을 피하는, 즉 '연대'의 내용을 채우는 이야기/토론 공간입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에이즈 운동에 주목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는 성 규범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찰하는 활동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1.13 [반차별 상상더하기]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 positive effect @서강대 인문관  
11.29 HIV/AIDS 거리 캠페인 및 산전전 @ 인사동 북인사미당

## 릴레이시민토론

\* 10.18 '내 삶을 통해 본 간통죄 폐지의 쟁점들'  
2차 릴레이시민토론은 "내 삶을 통해 본 간통죄 폐지의 쟁점들" 이 10월 18일에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합의하거나 끝장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달려있는 수많은 삶의 맥락을 더 펼쳐 늘어놓는 것이 기획의도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하다보면, 그 이유를 탐구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이슈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 날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30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3차 릴레이시민토론은 서강대 양성평등상담실과 공동주최로 '내 옆의 저 미니스커트, 정말 불쾌한 성희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지난 10월 30일 서강대 다산관 101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열이들은 "도대체 그것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나?"는 다양한 경험에서부터, 각자가 주변인과 나는 분석을 심도있게 담기도, 반 성폭력-성희롱 운동이 고안하고 있던 딜레마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하기도 하는 글을 써 주셨고, 진솔한 문제의식을 전달하며 토론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11.29 '낙태금지법의 가부장정을 묻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년도 하반기 미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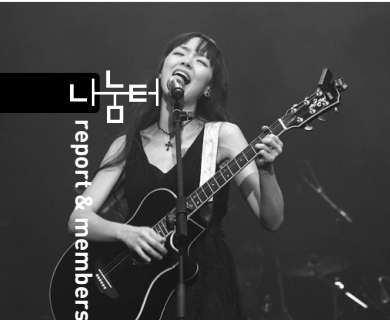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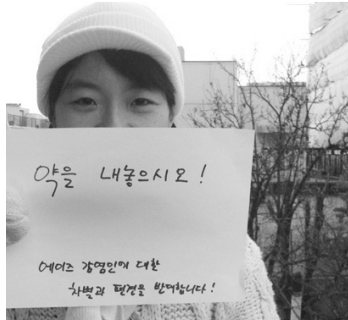
우리 상담소에서는 미션과 비전을 점검하고 향후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미래전망 워크숍을 작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안건들을 주제로 활발히 토론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의 결론을 얻으면, 이어 100의 고민이 따르오는 치열한 작업이었지만, 모두 열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히 1년 후, 3년 후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 9.2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0.7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0.14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0.21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1.4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1.8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12.9 미래전망워크샵 @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 작은말하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작은말하기'가 지난 11월을 끝으로 올해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작은말하기 공간에서 공유했던 눈물과 웃음, 그리고 이야기들... 함께 만들어낸 공간과 지지의 기운들... 벅찬 감동과 지메에 안겨주었던 2008년 작은말하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합정역 근처 카페 '사이애'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cafe.daum.net/small-but-big-talk](http://cafe.daum.net/small-but-big-talk)에 들어오시면 작은말하기에서 오가는 소통에, 온라인으로나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9.24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 10.29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 11.26 작은말하기 @ cafe 사이애





### 9.4 신규회원환영회

9월 4일 목요일 저녁에는 2008년에 상담소 회원으로 가입하신 신규회원님들과 함께하는 '2008 신규회원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총 10분의 회원님과 함께 모여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후원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쾌했던 시간에 함께하셨던 모든 신규회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9.27 여악여락 콘서트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08 여악여락 콘서트가 9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그 뜨거운 무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자우림, 한영애, 뷰티, 양희은, 서문턱의 멋진 무대에 모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0일에는 출연유지선 여러분과 함께 여악여락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김미화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본지 쪽에서 확인하세요! ^^

### 10.2 뇌물/배임형질/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10월 2일 목요일, 우리 상담소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뇌물/배임형질/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양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범죄 처벌과 재방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6가지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단체는 그동안의 반부패운동, 대기업감사활동, 피해자지원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 3가지 범죄에 대한 현 양형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0.15 직장내성희롱토론회

<직장내 성희롱 범죄화 10년, 가야할 길을 묻다 1. -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 인권당사자에게 묻다>라는 긴 이름의 토론회가 지난 10월 1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직장내 성희롱의 범죄화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여성 운동 단체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향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여성성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주최로 준비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한해 NGO교육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10.17 상담활동가 MT

10월 17일부터 1박 2일 강원도 홍천으로 상담활동가 MT를 다녀왔습니다. 피오나님이 마련해 주신 멋진 숙박과 김치로 배를 채우고, 가을의 명진행 속에 에너지를 충전도 한판 하고, 짙은 밤을 술로 새우며 노래방에서 몸을 풀고, 다시 출전전에 마지막 시우나까지 마치고, 아침엔 모닝커피로 속을 풀었습니다. 소위 젊은 활동가들은 상담활동가 선생님들의 체력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다는 소문이... ^^ 즐거운 MT를 뒤로 하고 다시 상담실로 복귀한 상담활동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 10.23 성폭력2차피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참여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우리 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성폭력 2차피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친고죄 등의 현안과제와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10.28 대청소

10월 28일에는 활동가들이 모두 업무를 중지하고 함께 사무실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오래 전부터 약속해 왔던 대청소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회색으로 바뀌었던 지하 모퉁이의 소파를 매직박스로 박박 닦으니 하얀 분래의 색이 나왔고요, 그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구들을 모아작정 정리하면서 '이게 바로 절약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한 사무실에서, 한결 개운해진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10.31 초등학교 고학년 성교육 프로그램 <인권강수성교실> 시범 교육 마무리

<인권강수성교실>은 문학해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초등학교 고



학년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한 뒤, 무려 40여 차례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서 그간 인권교육과 괴리되어 있던 성교육을 통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5개월 여를 준비한 교육안을 바탕으로 9월부터 두리하나 공부방과 무지개학교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31일 무지개교육을 마쳤습니다. 왓지떨릴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들랑똥망하게 우리를 응시하던 친구들의 눈빛을 기억하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13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11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방지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을 차례로 제정하고, 여러차례 개정해왔는데, 이러한 법제화 과정에서 과연 여성의 삶의 질과 안전이 확장되어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미경 소장과 이경향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성폭력관련법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19 인도여성의 지혜를 배우다 SEWA 방문 경험나눔

이날 오후 6시, 지난 여름 10일간 인도 SEWA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의 강수정, 우준희, 이슬나의 경험나눔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SEWA(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스스로 고용한 여성들은 인도의 구자라트주(古州))의 아메다바드시에 있어 1972년 설립되었고, 2006년 현재 90만명의 회원이 있는 일종의 생협같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발제자들의 발표 후 SEWA 조직의 철학 및 운동방식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방문했던 SEWA 곳곳을 상세하게 찍어온 동영상도 함께보고 토론을 하면서 인도 SEWA 여성들의 지혜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11.24 양형기준 마련 공청회

11월 24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마련한 양형기준안 중, 성범죄, 뇌물죄, 살인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분야별로 지정토론회자가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회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1.24-25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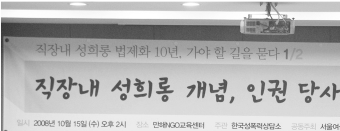
11월 24-25일 양일간 경남 마산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을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보인권, 페미니즘과 법, 상담원윤리강령 등을 주제로 전국 22여개 상담소와 쉼터 활동가들이 토론하고 회의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미경 소장과 부설 열린터 정정희 소장이 참여하여 배움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이어 열린 경남체계여성인권대회에도 함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 11.26 색수열리더 쟁점포럼

지난 11월 26일 2008년 색수열리더 쟁점포럼의 세 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장애여성 공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의 만남에 이어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의 만남으로 마련된 자리였지요. 주제는 '성별/규범' 어떻게 넘어올까 운동할까, '성별'과 관련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지렁이의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 12.13 한해보내기

12월 13일 토요일 저녁, 마포평생학습관 대강당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바로 우리 상담소 한해보내기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무려 110여분의 회원님이 행사장 곳곳을 가득 메웠었고요, 후원과 기부로 이뤄졌던 바자회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  
2008년 10월 15일 (목)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노디너루움



# 9월 27일, 2008 여악여락콘서트 〈그녀들의, 가장 뜨거운〉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 나눔터 편집팀



애님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 같은 멋진 무대였어요. 뷰렛은 열정적인 하모니카 연주와 노래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구요. 양희은님은 관록이 넘치면서도 따뜻한 무대로 객석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셨답니다. 서문탁님은 많은 관객들을 무대 앞까지 뛰어나오게 만드는 파워를 보여주셨구요.

2008 여악여락 콘서트를 위해 무려 4개월이 넘는 자원활동으로 공연을 함께 꾸려주신 7명의 기획단과, 홍보와 현장진행을 맡아주신 21명의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무대를 만든 출연진과 이에 못지 않게 객석을 뜨겁게 달군 모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구요.

'여성이 음악을 하니 여성이 즐거워라'라는 '여악여락'의 뜻처럼, 많은 분들이 즐거운 웃음을 남겨주고 가셔서 상담소 활동가들도 뿌듯한 마음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더불어 공연을 통해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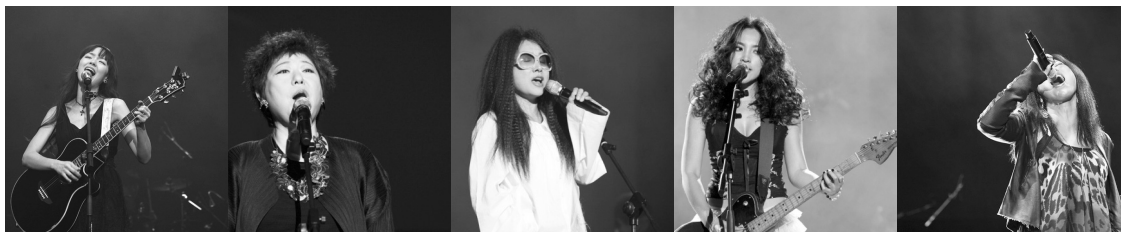
공연이 열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앞마당에서는 6시부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제법 선선해진 가을날씨와 함께 협찬 받은 도너츠와 음료를 즐기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대강당 문이 열리자, 20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다란 스크린과 악기들이 무대에 자리잡고 있었구요, 상담소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여악여락 인트로 영상으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우림에 이어 한영애, 뷰렛, 양희은, 서문탁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간간히 각 출연진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더욱 궁금해지는 그녀들의 열정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자우림의 활기찬 무대가 뒤이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듬뿍 올려놓은 뒤, 카리스마 넘치는 한영

2008 여악여락 콘서트 〈그녀들의, 가장 뜨거운〉을 통해 여러분의 '뜨거움'을 되살린 여러분,  
여악여락 홈페이지 [www.yeorock.com](http://www.yeorock.com) 에 오셔서 감동의 후기를 남겨주세요!



## 3rd 반차별 상상더하기

##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 씨 이야기’

◎ 성문화운동팀 키라

지난 두 번째 상상더하기에서는 ‘피해/차별을 어떻게 말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번 세 번째 상상더하기의 주제는 ‘이주’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하고, 다양한 운동 단체에서도 이주민을 만나는 기회가 늘어났죠. 하지만 이주가 나와 다른 ‘이주민’의 문제이고 나 스스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주’와 ‘다문화’는 여전히 타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주 인권 단체나 이주 이슈를 종종 접하지만, 그것이 반성폭력운동의 지향, 내용과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슈의 소통을 통한 운동 지향의 성찰이나 확장을 통한 너른 연대의 기회는 줄어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상더하기에 참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주’ 운동의 이슈가 반성폭력 운동의 이슈와 어떤 공명을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사고와 문제의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방인’이라는 이번 상상더하기의 제목은, 사실 우리 모두 ‘이주’라는 키워드로 만나고 있는 지점이 있음을 발견했음에서부터 이 자리가 기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을 하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여겨, 동정하거나 차별하는 이유가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노동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이주의 욕망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자기 개발’ 논리와 닮아있죠. 이러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시 위해 네팔에서 이주해 오셨고, 현재 다국적밴드 스탱크랙다운의 보컬로 활동하고 계신 미누 님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신 레향탄 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국제결혼 역시, 많은 한국인들은 ‘인신매매 결혼’이라면서 ‘돈 받고 팔려온 여성’이라고들 인식하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결혼 역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자원의 교환’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주 여성의 ‘행복’에 대한 욕구가 이주의 핵심적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이주 여성의 이슈에 대한 새로운 공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주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멋진 그녀들’의 감독 주현숙

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주 여성은 현대판 심청이인가?’라는 주제로 짧은 자유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을 희생하여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 위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다’라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서 시작되었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심청이는 몸을 던졌지만, 오히려 바다 밑에서 더 좋은 황궁을 만나서 물에서보다 더 행복해졌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삶도 사실 그럴 수 있다’라는 상상을 더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심청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00). 관련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의 몸을 자원으로 하여 국경을 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자원으로 하여 남편의 집(가문)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이주한다’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결혼’과 ‘이주’를 설명해 주신 분도 계셨지요.

이와 더불어, 임월산(서울경인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 님과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님의 발제를 통해 인종주의 & 젠더라는 키워드를 현재 ‘이주 운동’의 이슈와 교차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이주 운동 이슈의 지향하는 바를 각자의 운동 영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 더불어 다른 운동과의 확장된 연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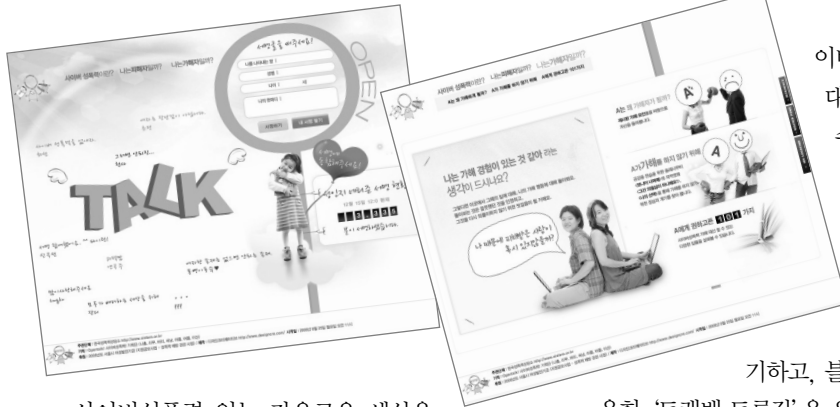
다른 ‘차별’에 대해 인식하거나 민감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나에게 익숙한 것)이 사실 얼마나 그 차별의 구체적 현장과 연결되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익숙한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통해 되새기게 됩니다. ☺

\* 위의 발제문은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chachacha.jinbo.net>



# Open Talk! 사이버성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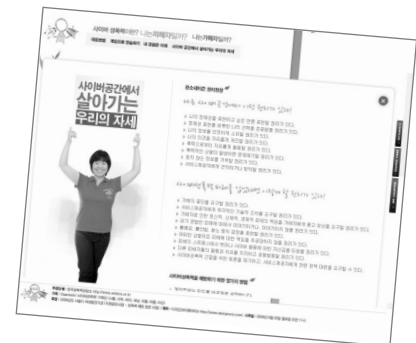
## ◎ 나눔터 편집팀



이버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었고요, 위축이 아닌 권리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이버성폭력의 범위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 블로그의 트랙백 기능을 이

용한 '트랙백 토론장'을 운영한 점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항시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Open Talk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4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하였고요, 3,335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기준) 이 중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84% 이상이 '사이트의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트랙백토론을 진행한 것 외에는 블로그 기반의 빠른 소통에 보다 효과적으로 침투하지 못했던 점과 홍보가 더 널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블로그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및 미디어 교육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9년에도 Open Talk에서 트랙백토론이 진행된다고 하니, 블로그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이버성폭력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한 네티즌 캠페인 Open Talk 가 지난 8월 25일에 시작되어 약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Open Talk!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장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속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한 정보문화를 해치는 행위이기 에 네티즌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토론하고 예방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웹사이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사이버성폭력의 개념을 다각도로 살피고, 네티즌 토론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확장하는 '사이버성폭력이란?',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피해 경험 말하기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확보를 돕는 '나는 피해자일까?', 가해의 원인을 고찰하고 앞으로 가해를 하지 않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나는 가해자일까?', 성평등한 인식을 갖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완소네티즌의 성평등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사

## 열아홉번째 작은말하기를 기다리며

◎ 성문화운동팀 자주



### 2008 작은말하기 마지막

저녁 5시 반. 한 시간 30분 전이다. 몇 분이나 올까? 어림잡아 김밥을 주문하고 계절과일을 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케익까지 손에 들었다. 카페 '사이애'에 들어서니 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위안 받는 기분이다.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현수막으로 공간을 꾸미고, 다과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참! 경사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경사로까지 입구에 설치하고 나니 작은말하기 공간 완성. 올해부터 작은말하기 공간을 허락해주신 사장님과의 호흡도 적척이다. 작년 4월 처음 문을 열어서, 이제 열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작은말하기다.

### “다들 왜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작은말하기에 처음 오는 여성들은 첫 말문을 이렇게 열곤 한다. 성폭력 경험을 나누다는 작은말하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궁금증과 과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이곳을 찾은 여성들은 그렇게 묻는다. 아무래도 이야기의 주제가 무거운 만큼, 다들 괴롭고 힘들 표정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게다. 그런데 웬걸? 자신이 예상했던 분위기도, 표정도 아니다.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과 다르지 않다.

작은말하기가 시작되면, 여성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감정과 속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둘 꺼내놓는다. 격렬하게 또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있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경청할 진심이 있는 이 여성들이라면... 작은말하기 공간에 신뢰와 공감이 차오르면, 서서히 마음의 빗장도 풀려진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 작은말하기는 계모임?

그렇게 참여자들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작은말하기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참여자들에게선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처음 온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여유도 물어났다. 이제는 이 '완소' 여성들이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여성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챙기는 여성들. 경험은 그렇게 과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흐른다. 그러한 '변화가능성'이 작은말하기의 존재이유임을, 이 여성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작은말하기에서 나누는 이야기 역시 그렇다. 과거의 경험은 끊임없이 자신의 현재 삶에 의문을 던진다. 성폭력이 일어난 전후 삶의 맥락으로, 그 경험을 해석하고 소통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삶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한 치유에의 갈망으로 그것은 계속 변주된다. 작은말하기가 한바탕 과거사 속풀이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작은말하기가 성찰과 변화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내 손을 잡아주는 여성들의 따스한 시선이 있기에 가능하다.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온몸으로 말하기 시작한 그녀들의 말하기는 곧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위한 몸짓이다. 운동이다.

### “내년에도 하는 거죠?”

참여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하지 3시간. 2008 작은말하기의 작별을 고하자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다. 참여자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역력하다. 그리고 이 아쉬움을 달래느라 진행자 역시 몇 분간 진땀을 뺐다. 11월 26일자로 작은말하기는 동면에 들어가지만 내년 봄이면 더 새로운 모습으로 기지개를 켤 것이다. 그리고 언제 나처럼 여성들 곁에 머물러, 여성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소리 없이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문을 열면서 물을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멀쩡한 거예요?”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녀에게 기꺼이 의자를 내어주면서 희미하게 웃을지도 모른다. 등을 토닥이고 휴지를 건네고 그러면서도 우리만의 통쾌한 웃음을 잃지 않는 작은말하기. 2009년, 매월 마지막 주면 합정동 어느 골목에서는 그녀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열아홉 번째 작은말하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 인권감수성교실, 활짝 열다~

◎ 성문화운동팀 자주



“초등학교 5학년 특활시간이었던가. 남자아이들은 단체로 축구하러 내보내고 여자아이들은 강당에 모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던 나는 강당에는 양호선생님이 보여주는 슬라이드 속 낯선 그림들과 아이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웬지 겁이 덜컥 났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렇게 낯선 그림과 정보들을 단체로(!) 그러나 남몰래(?) 은밀히 전수받았다. 그게 성교육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문학동네의 지원을 받아 아동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인권’과 만나는 ‘성’이었다. 생물학적 생식기 중심의 ‘지식’이 아닌, 아동에게 성은 위협하다는 ‘공포’가 아닌, ‘인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풀고자 했다. 십대의 성 관련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수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요즘,

성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성교육 현실은 ‘성’을 특화 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성’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은 관계이다. 성은 나와 나,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사회가 만나는 중요한 고리이다. 내 몸의 변화, 불편함, 두려움, 즐거움에서 나아가 나의 정체성, 성적 지향을 탐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가를 아는 것 못지않게 남성성, 여성성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아매는 성별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차별/폭력의 문제 역시 ‘폭력과 차별은 나쁘다’ 식의 허약한 구호가 아닌, 구조의 지형을 읽을 줄 아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실적 한계-아동이 가진 열악한 사회적 지위: 훈육의 대상-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11~13세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교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평화,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성교육강사, 여성주의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기획단은 4월부터 진행된 수십 차례의 기획회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 안을 마련하



고, 정밀하게 다듬어 갔다. 그 노력의 결과로 2시간씩 5회기 프로그램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두리하나공부방과 무지개학교에서 <인권감수성교실>을 선보일 수 있었다.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던 아이들의 대답들, “재미없어요” 투명하고도 가차 없던 반응에 강사들은 당황했지만, 또 그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두리하나와 무지개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시범교육에서, 우리는 계획대로 5회기의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인권감수성교실>의 가능성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교육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훗날 이 교육을 어떻게 기억할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악착을 떨던 욕심을 잠

시 내려놓고 생각해본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의 삶도 조금은 더 복잡해졌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단 한 줄이라도 떠올려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일까. 아니, 성에 대한 느낌(!)이 어둡고 은밀한 강당의 그것이 아닌, 우리가 교육했던 9월의 화창한 햇살로 남기만 해도 좋다고 한다면 악착같은 욕심이 갑자기 너무 소박해지는 것인가.

메시지, 교육방식, 어휘 구사 등 모든 게 물음표였던 상황에서 강의 대본까지 만들며 수고한 기획단. 그리고 어리숙한 강사들을 빛나는 호기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준 두리하나 공부방과 무지개학교 친구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 제18차 정기총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제18차 정기총회가  
**2009년 1월 31일(토) 3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회 장소는 우리 상담소 근처에 위치한 **유니아트홀**입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기총회로서  
 지난 6년5개월간 소장을 역임한 이미경 소장이 퇴임하고,  
 새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상담소의 정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소의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함께해 주세요.

1부 총회에 이어  
 2부에는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오셔서 따뜻한 박수와 격려로써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은 200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정회원 가입 의사를 밝혀주신 회원님을 말합니다.  
 곧 정회원 신규가입 절차가 있을 예정이오니,  
 전화번호나 주소, 이메일 등이 바뀌신 회원님은 저희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T.02-338-2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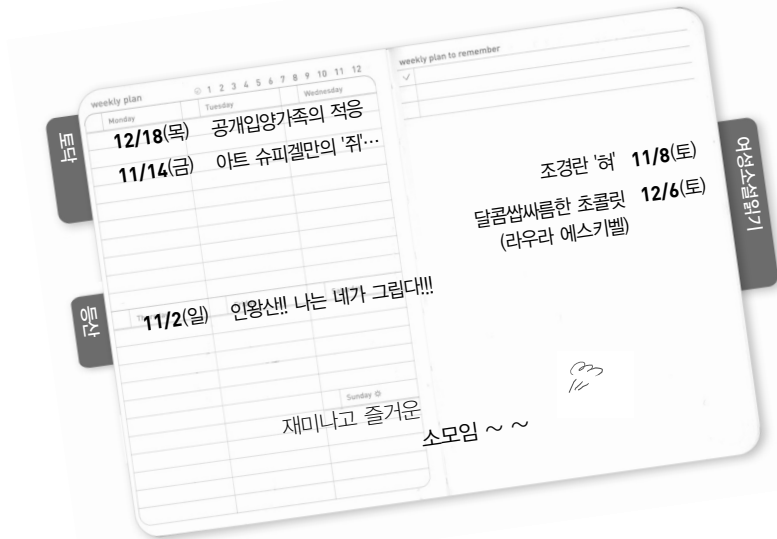
report & membership

## [소모임 활동]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회원님,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세요~~~

♥ **토닥소모임** : 여성/노동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소모임입니다. 벌써 3년을 바라보는 소모임이구요, 지금까지 여성들의 경험을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보고자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영역을 넓혀 '여성' 주제 외에 '전쟁', '생존자' 등에 대한 질적 연구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토닥스터디는 항상 회원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여성소설읽기 모임** : 소설을 읽다보면 바로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될 때, 내 안의 고민을 털어놓고,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바로 당신은 소설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저말고 어서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정말 즐겁고 끈끈한 모임들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함께 하실래요?.. -----

## [훈훈한 기부]

♥  
오늘은 우리 상담소의 회원님으로부터 참 기분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친구가 경품으로 탄 게임기를 조카에게 선물하면서, 게임기를 공짜로 얻은 대신 그 돈을 우리 상담소에 기부하시겠다는 사연이었어요. 작은 일에서, 순간순간 늘 상담소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항상 즐겁고 신명이 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 사.랑.함.니.다^o^

